

거북이공방

친구들



- 4 거북이공방 친구들을 소개합니다
- 5 거북이공방은

- 36 **두드림**
한덕우·김주봉·심명섭, 60대, 은퇴자 삼총사
'두드림' 활동모임 3년차

- 41 **정다솜**
여, 30대, 직장인, '죽사발' 활동모임 개설

- 45 **한창균**
남, 50대, 죽공예 작업자
'대나무배우기' 강좌 진행 3년차

- 49 **현민주**
여, 20대, 수원시평생학습관 연구원
거북이공방 담당 2년차

- 54 **문화로놀이짱**
김정석·오아름, 문화로놀이짱 작업자
'2017 공간더하기상상 프로젝트' 가이드

- 59 **후가**
용형준·임주현, 우드카빙작업자
'나무와칼도끼' 강좌 진행 3년차

- 64 **곽도절단기**
여, 30대 후반, 수원시평생학습관 교육팀장
거북이공방 숨은멤버 활동 2년차

이야기

- 8 **정다현**
인터뷰어, 여, 30대, 수원시평생학습관
책임연구원, 거북이공방 담당 4년차

- 10 **조현진**
남, 30대, 우만동 수제맥주집 운영
'언플러그드우드카빙' 활동모임 3년차

- 14 **이성희**
남, 30대, 수원소재 지원단체 근무
'자라&그린우드카빙' 활동모임 1년차

- 18 **구하나**
남, 40대, 회사원
'언플러그드우드카빙' 활동모임 4년차

- 22 **길공방**
철민·구름, 길공방 작업자
'나무깎는생활' 강좌 진행 5년차

- 28 **장영환**
남, 30대, 점점우드워크 운영, 목수
'목공구배우기' 강좌 진행 4년차

- 32 **김연암**
남, 60대, 사업체 운영 후 퇴직
'화요거북이' 활동모임 4년차

정리

- 71 작업자, 우정, 그리고 물들이기

부록

- 78 거북이공방 연대기
- 80 거북이공방 도구와 기계
- 82 거북이공방 활동모임 현황

거북이공방 친구들을 소개합니다

친구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친구라는 말은 우리가 같은 것을 좋아한다고, 즐거운 관계라고, 너무 멀어지는 것도 가까워지는 것도 겁내지 않을 수 있다고, 그리고 때로는 힘을 합쳐 어려운 일도 힘들이지 않고 지나보낼 수 있다고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거북이공방에서 만났습니다. 나무를 알아가는 수강생이었고, 길을 알려주는 강사였고, 거북이공방이 일터인 담당자이기도 했지만 손을 쓰고, 힘을 모으는 일을 함께 하며 우리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서로 알려주고 배우고, 나누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거북이공방의 이야기를 정리하는 것은 곧 친구들이 어떻게 지냈는지를 살펴보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거북이친구들 한명 한명과의 대화를 이곳에 담았습니다. 거북이공방에서 변화한 우리의 다양한 일상과 작업, 그리고 삶의 방식이 대화에 녹아있었습니다. 우리의 대화, 거북이공방의 친구들의 목소리에 거북이공방의 다채로운 모습이 담겨 이웃들에게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거북이공방에 놀러오세요.

거북이공방은

거북이공방은 생각하는 만들기를 통해 자연과 사물, 창조의 행위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작업장입니다. 손의 감각을 되살리는 다양한 경험과 서로를 바로 서게 하는 건강한 연대를 통해 내 삶의 자립을 실천합니다.

오픈데이

남녀노소 누구나 공동작업장을 마음껏 사용합니다. 친구를 만납니다.

강좌

일상에서의 작업을 위한 기초목공기술을 습득합니다. 공방특강을 통해 다양한 작업자들의 이야기를 알아갑니다.

프로젝트

강사 없이 스스로 작업을 설계하고 디자인합니다. 공방의 공동물품도 제작합니다. 프로젝트를 통해 다양한 제작의 방식, 작업의 방식을 경험합니다.

활동모임

배움과 경험을 일상으로 가져 옵니다. 정기적으로 친구들과 함께 작업합니다.

캠프

작업 과정을 보다 깊이 경험합니다. 거북이공방 강사의 작업장을 방문해 작업자의 일상을 엿보기도 하고, 자연 속에서 재료를 직접 채집하기도 합니다.

이야기

정다현

인터뷰어, 여, 30대
수원시평생학습관 책임연구원
거북이공방 담당 4년차



거북이공방에 자주 오는 초등학교 아이들이 있어요. 공방 오픈데이에도 오고, 같이 화분에 물도 주고, 눈이 내리면 썰매를 만들러 오고, 그냥 지나가다가 들르기도 하고, 축제 때는 같이 하룻밤 자며 놓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출근하는 길, 아이들이 학교 가는 길에 자주 마주쳤었어요. ‘잘 다녀와!’ 하고 인사하곤 했었죠. 어느 날은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는데 건너편에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손을 들어 휘휘 저으며 큰 소리로 불러 세워 어딜가냐고 물으니 수영장에 간다고 했어요. 그렇게 아이들과 인사를 하고 돌아서는데 갑자기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사실 이전에는 친구란 것은 굉장히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친구가 별로 없었죠. 일상의 거리가 멀어지면 친구들도 곧잘 멀어지곤 했어요. 일상을 같이 보내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사는 동네, 학교, 일터의 일상 속 친구들은 다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거북이공방은 저의 일터였어요. 그러다가 아이들과 인사하고 돌아서던 그 순간에 알게 되었죠. ‘이곳은 이제 나에게 더 이상 일터만이 아니구나’ 거북이공방은 나의 동네이자, 일터이자 일상이 되었어요. 저는 아이들을 좋아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전에는 알지 못하던 새로운 친구의 형태를 알게 되었어요. 머리보다도, 말보다도, 손을 먼저 움직여서 그렇게 되었을지도 몰라요. 손은 곧 마음이거든요. 공방에서는 고마움도 미안함도 즐거움도 서운함도 모두 손을 내밀어 표현 할 수 있었어요. 나무를 깎아 수줍게 내미는 책갈피를 선물 받곤 했었죠. 그러다 보니 더 가깝다고 느껴지기도 했어요.

거북이공방에서 지낸 3년 동안 정말 많은 친구들이 생겼어요. 그러다가 궁금해졌죠. 친구들의 생각은 어떨까?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어요. 손으로 나누었던 대화에 숨겨져 있던 의미들, 알아차리지 못했던 마음들을 들려달라고 했어요. 친구들이 마음을 꺼내어 들려줬어요. 친구에게만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아마 다 읽고 나면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나도 친구가 될 수 있겠다’

조현진

남, 30대
우만동 수제맥주집 운영
‘언플러그드우드카빙’ 활동모임 3년차

“이제는 나무를 깎는 것이
물마시듯 자연스럽잖아요.
인위적으로 손가락 깎으려는
강박을 가지고 깎지 않죠. 사실
손가락이 수십 개 필요한 것도
아니고, 나는 그 행위 자체. 그
순간에 자유로움을 느껴요.”



땅콩 볶는 나무주걱 남겨진 나무, 305×57×10mm

조현진 공방에는 은빈이가 가자고 해서 처음 왔었어요.

정다현 가자고 해서 그냥 무턱대고 오셨어요?

현진 내가 지루해 보였나? 회사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보였나? 그래서 은빈이가 같이 가자고 했어요. 그냥 따라왔어요.

다현 기대했던 것은 있었어요?

현진 없었어요.

다현 공방이 어떤 데인지도 모르지요?

현진 하기 싫었어요.

다현 처음 수업이 손가락 깎는 거였잖아요. 선생님의 그동안의 활동을 쪽 보니깐 그 이후로 수업보다도 활동모임을 더 많이(오래) 한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는. 수업을 들을 때는 누군가에게 뭘 배웠잖아요. 지금은 모임을 하고 계시는데, 수업과 모임, 그 둘이 많이 다르다 인식하는지 여쭙볼게요.

현진 다를 거 없는 거 같은데... 나와서 천기복님 같은 분들, 동료들 이랑 같이 이야기하고, 그런 게 너무 좋아요

다현 어떻게 보면 이제는 동료들과 맛있는 거 먹고 이야기 나누는 게 더 커졌어요. 손작업은 예전보다 잘 안하죠?

현진 잘 안하는 건 아니고, 하긴 해요. 작업량이 전 같지 않은 거지.

다현 요즘도 깎고 계세요?

현진 예전에는 힘든 마음을 대체하려고, 그 시간들을 나무 깎는 시간으로 채웠다고 하면, 요즘에는 그냥 깎는 거죠. 즐기는 거예요. 그 시간을, 지금도 깎고 있어요.

다현 활동모임을 하신지 몇 년 되셨어요?

현진 2-3년, 햇수로 3년. 만으로는 2년 된 것 같아요.

다현 혼자 깎아도 되는데 모임에 계속 나오는 이유가 있나요? 자주 얘기 하시는 것처럼 나무 깎는 건 음악 들으면서 몇 시간씩 혼자 하는 건데 모임은 정기적으로 나오고, 활동도 해야 되는데 모임을 통해 얻어가는 것이 있을까요?

현진 손가락 깎는 걸 좋아하듯이 모임원들을 좋아하니까 나오는 거죠.

다현 공방에서 활동했던 것들 중에 기억에 남은 장면이 있나요?

현진 작년에 행궁동사진관에서 달력 프로젝트에 실릴 사진 찍을 때, 거짓말 같았던 분위기. 이상한 기분, 뭔가 감동적이었어요. 우선 작가님이 사진 촬영하는 자세가 놀라웠고, 작품에 대해 이야기 오랫동안 하고 대화를 깊게 하는 모습이 좋았고. 좋을 줄 몰랐는데 엄청 좋았던 날이었어요.

다현 결국 모임원들이랑 함께 하는 것을 즐기고 있네요.

현진 그런가? 실제로는 나무 깎는 시간을 엄청 좋아해요. 집에 있다가 혼자 깎다가 어느 순간 몰로 행복 쏟아 붓듯이 행복한 순간 있잖아요. 알죠? 혼자 있을 때 그 시간을 알기 때문에 좋아해요. 요즘에는 그 시간을 잘 만나지는 않는데, 나는 이미 그 행복을 알고 있고 언제라도 그 시간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죠.

다현 한동안 모임에 책갈피 깎기 붐이 일어났어요. 처음 책갈피를 제안한 당사자로서 책갈피를 깎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

현진 좋은 디자인이라는 것은 형태를 규정한다고 생각했어요. <지적자본론>을 읽고서 많은 걸 생각했었죠. 좋은 책갈피라는 게 뭔가, 책을 한 권이라도 더 읽게 만드는 책갈피가 아닐까. 진짜 좋은 칼은 '이걸로 요리 한번 해보고 싶다' 라는 마음까지 하게 하는 칼. 것처럼 책갈피도 그 생각으로 만든 거예요. 그때는 책읽기를 좋아하고 싶어 했고 (좋아하고 싶어 한거예요) 우리에게 좋은 책갈피는 쉽게 깎아서 만들 수 있다는 편리성도 있지만, 책 읽는 문화를 책갈피로 제안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만들었어요.

다현 그 책갈피가 학습관에 손님이 왔을 때 우리 학습관 기념품으로 보내졌어요. 스스로 책갈피를 만들 수 있는 도구와 재료를 넣은 키트를 만들었었죠. 그리고 행궁광장에서 하는 북아트마켓에 출점하기도 하셨죠. 그 때 수원에 출장 왔던 미국인이 아들과 딸에게 준다고 하나씩 사가기도 했었어요. 그렇게 내가 만든 무언가가, 나의 메시지가 다른 사람에게 널리 퍼지는 경험을 한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 이야기 좀 부탁드립니다.

현진 처음이었어요. 주도적인 삶을 사는 기분이죠. 회사 다닐 때는 정신없어서 이런 걸 바라볼 새가 없었어요. 지금은 내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그 전에 회사에서는 돈 잘 버는 프로들끼리 모여서 돈 버는 게 일인 거잖아요. 근데 이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완전 다른 거예요. 나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나 스스로도 이상하게 그렇게 되었더라구요.

다현 그런 삶에 거북이공방이 차지하는 역할이 있었어요? 장소로든, 행위로든.

현진 학습관 걸어오다 보니 적혀 있던데, 제가 뭘 배우려고 했던 거는, 무의식적으로 뭔가 내가 변화하고 싶다는 욕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거북이공방에 와서 무언가를 배웠던 거 아닐까요? 본능 같은 거, 우리 그런 거 믿잖아요. 무의식중에 뭔가 삶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욕망. 결과론적으로 그런 게 있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

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 해보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나는 지루한 거 딱 질색인데 나무 깎고 모임 오래 하는 거 보면, 그때 얘기 드렸잖아요, 삶이 변화되는 것을 느낀다고. 기술이라는 것이 내가 무인도가면 손가락 깎아서 뭐라도 먹을 수 있다면 그게 현명하다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게 거북이공방의 목적이라고 했잖아요. 그걸 실제로 체화했고 느꼈어요. 창조자가 된다는 것에 카타르시스가 있어요. 물건의 창조자. 그냥 좋은 손가락도 좋지만, 손가락의 온전한 주인이 된다는 느낌. 어떤 의미로는 폭력적 일수도 있지만, 내가 만들어 내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이번 연말에 작품들을 모아 사진까지 찍으니 뭔가 완성되고 완결 되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런 것들이 거북이공방의 기획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나무를 깎는 것이 물마시듯 자연스럽잖아요. 인위적으로 손가락 깎으려는 강박을 가지고 깎지 않죠. 사실 손가락이 수십 개 필요한 것도 아니고, 나는 그 행위 자체. 그 순간에 자유로움을 느껴요.

이성희

남, 30대
수원소재 지원단체 근무
'자라&그린우드카빙' 활동모임 1년차

“제가 삶에서 되고 싶은 게 있다면
‘일상을 잘하는 사람’. 그런 면에서
목공은 너무 편하고 좋아요.
수강신청 할 때 제목에 있는
‘삶기술’이라는 말 자체가 너무 와
닿았고 그런 삶기술들을 얻어서
일상을 풍성하게 지내고 싶어요.”



달접시 호두나무, 호두오일, 140×25×10mm

이성희 저는 원래 도예를 하고 싶었어요. 2016년에 수원에 왔으니까, 17년부터 여기 왔는데 1년은 그냥 지내다가 취미를 가져야지 해서 도예를 찾아봤는데 그냥 만들어진 것하다가 그리는 체험밖에 없었어요. 하면 제대로 하고 싶는데 그럼 멀리 가야하고 가격도 부담이 되고 해서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거북이공방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센터에 항상 수원시평생학습관의 소식지가 왔었어요. 너무 좋은 강좌들, 인문학 강의 ‘엄기호’ 선생님도 계시고 다른 것들도 ‘참 강좌 좋다’ 하고 있었는데 그때도 거북이공방은 잘 몰랐어요. 그러다가 목공을 한번 그냥 해보자 해서 수원에 있는 열쇠공방들도 찾아봤는데 교육은 잘 없고 비밀번호 공유해서 한 달에 얼마를 지불하고 쓰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거기는 정도 안가고 했는데 우연히 거북이공방에 오게 되어서 보니까 너무 잘되어 있어서 계속 오게 되었죠.

정다현 들었던 수업에 대해서, 어떠셨어요?

성희 길공방 선생님들이 하시는 ‘깎아 만든 작고 낮은 의자’, 그리고 후가 선생님의 ‘나무와 칼,도끼’를 들어봤어요. 기계수업은 못 들어 봤어요. 시간이 잘 안 맞아서요. 기계 쓰는 법을 배우고 싶어서 찾아 봤는데 ‘디지털대장간’이라고 있더라고요. 거기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데 목공방에 기계들이 엄청 많아요. 한 달 신청하면 사용법을 다 알려줘요. 자유자재로 예약해서 빈 시간에 가서 기계들을 쓸 수 있어요. 여기는 기계가 많이 없다보니까 거기 가서 초벌 해오고 여기서 작업하고 그랬죠. 거기는 좋기는 한데 완전 무미건조해요. 정말. 인사해도 잘 대답도 안하고 해서 자기 할 것만 하고 오고 그랬어요.

다현 그런 곳들이 대부분 그렇죠. 대신 다른 장점들이 많으니깐요. 선생님처럼 작업에 집중하는 분들은 기술적으로는 장비가 갖춰진 곳이 좋을 텐데 기계를 쓰기도 어렵고, 장비도 많지 않은 거북이공방에 매주 오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성희 저도 모르게, 재밌으니까 오는 건데, 사실 저는 취미들이 많아요. 영화보기, 맥주마시기, 책읽기 이런 것들. 이런 건 대부분 두 시간, 세 시간 그걸 해도 그 이상은 못하는데 나무 깎는 건 되게 오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는 동안 다 잊을 수 있어요. 모든 게 잊혀지고 배경이 백색이 되고 그런 게 너무 좋고 그런 것들이 워낙 일단 내가 만든 결과물 자체가 나온다는 게 좋죠. 다른 취미들 있었을 때는 내가 만들 결과물 자체는 없는 거예요. 거의 다 소비죠. 아니면 그런 것들은 결과물이라고 해도 내 안에 쌓이는 자세나 지식 태도 이런 건데 목공은 내가 시간을 두면 결과물 자체가 나오니까 나오면 선물도 할 수 있고 그런 게 이전의 취미와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게 와 닿았던 거 같아요.

다현 집에서 많이 깎으시죠?

성희 집에서는 잘 깎을 수 없어요. 망치질도 못하고. 그래서 대부분 여기서 초벌로 해 놓으면 끝질을 집에서 해요.

다현 일상에서 작업하는 패턴, 흐름이 잡혔네요.

성희 네 이제는. 요즘에 느낀 건데 보통 하나 만들었다 하면, 네 번이 나 다섯 번 정도 수정을 해요. 나는 분명 완성이라고 했는데 그 이후로도 다섯 번 정도 더 손을 대고 수정을 해요. 그 과정 자체가 되게 재밌어요. 나는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날이면 다시 손대게 되고 그런 거.

다현 장인 아니에요? 선생님 작업물들이 완성도라든가 그런 걸 보면 취미를 넘어서 여기에 대한 몰입이 남다른구나 생각했어요.

성희 그거 다 배끼는 거예요. (웃음) 재미를 붙이면 당연하지 않나 싶어요. 다른 취미들도 처음에는 좋아서 하다가 궁금해지면 역사도 찾아보고 책도 영상도 찾아보고 그런 것 같아요. 제 스타일인 것 같아요.

다현 여자 친구랑 기념일에 공방에 같이 오신 것. 깜짝 놀랐어요. 자연스러울 수도 있는데, 좋은 게 있으면 다 보여주고 같이 가고 하는. 저도 그런 성향이 있는데, 선생님이 여자 친구랑 같이 오게 된 마음은 뭔지 궁금했어요. 보여주고 싶었는지 추천해 주고 싶었는지. 어땠나요?

성희 큰 이유는 없고, 여자친구가 워낙 열려 있다 보니까 굳이 기념일에 ‘뭘 해야 한다’ 그런 건 딱히 없어서요. 그리고 제가 공방에서 엄청 열심히 하는 거 여자친구도 알거든요. 아니까 한번 와보고 싶어서 같이 왔어요. 그때 왔을 때 천기복 선생님이 계셨는데 선생님 만나서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직장 상사 중에 마음을 다해 존경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 분을 소개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다현 그렇게 생각하니 한편으로는 자연스러운데, 한편으로는 특별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사회에서 취미활동을 하며 만난 사람들 중에 ‘좋다’라고 하는 경우가 잘 없는데, 선생님에게는 공방의 작업자들이 의미나 이유가 되나요?

성희 일단 대학 때부터 커뮤니티나 마을 공동체에 대해 공부를 했는데, 그런 것에 대해 동의는 하지만 그런 걸 만들려고 하거나 그런 삶을 살아야지라고 적극적으로 하는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거북이공방에서 작업하면서, 현대적으로 지금 시대에서 공동체라든지 마을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형태가 아닐까하고 느꼈어요. 예전의 마을이라고 하면 그런 정형화된 마을의 형태가 가능했을지 몰라도 지금은 불가능하지 않아요. 노동과 생활이 분리되어 있고, 장소도 분리되어 있고. 대부분 직장생활을 하면서 시간을 내어 여기에 오는데, 나도 여기 오는 사람들에게 공동체적으로 환대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느슨한 공동체가 있다고 한다면 거북이공방에서 만나는 관계들이 그런 게 아닐까 생각했어요. 그러다보니 정도 생기고 그랬죠. 솔직히 근데 요즘 시대에서 이런 걸 많이 찾기 어려운 것 같아요. 대부분 공동체라고 하면 너무 뭐라고 해야 되지? 취향이 너무 그쪽 취향으로만 치우쳐져 있는데, 여기는 뭔가 진짜 자연스럽게 잘 물어나게 하는 것 같아요. 잘 물어나게 해서 그런 것에 대해 생각이나 고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올 수 있었어요.

다현 어려운 얘기나 거창한 취지나 목적 이런 데에 매이지 말고 아무 때나 와도 대화 나

누고 인사하고 작업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목공작업이 에너지 소모가 많아서 작업이 아닌 이상 놀상 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쉬었다가 언제든 와도 사람들이 있는 그런 장소였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었죠.

성희 그런 면에서 기획력이나 그런 것들에 감탄했어요. 대학 때 사회 복지를 공부해서 주위에 이런 일 하는 사람도 많았고, 그런 활동에 대한 고민도 많이 했다고 생각 했는데 이런 걸 잘 녹여내는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다현 저도 놀라운 게 저희가 생각한 것을 그대로 알아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다는 것이 너무 좋고 놀라워요. 제가 학습관에 입사할 때 다이어리 맨 앞에 적어둔 글귀가 있었어요. ‘예전부터 이어져온 보편적 가치나 진리를 지금에 맞게 실현시키고 싶다’ 라는 나 스스로의 미션이 있었는데, 이렇게 언어화해서 이 사업, 거북이공방의 방향이나 취지를 저에게 다시 들려 준 분은 선생님이 처음인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을 명확한 언어로 전달한 적은 잘 없었는데 이런 걸 어떻게 알아채시고 이야기 해주시는지 참 놀랍죠. 그런 면에서 거북이공방은 걱정이 없어요. 작업자들이 모였다, 흩어졌다, 바뀌면서 굴러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있어요. 작업에 대해 다시 얘기 할까요. 일상에서 만든 물건을 잘 사용하고 집중해서 만들고 하는 모습들.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성희 처음 만들 때 내가 사용할 것만 만들자 했어요. 지금은 물론 많이 만들어서 선물도 하고 하는데 처음에 사용할 것만 만드는 것이 목표였어요. 제가 삶에서 되고 싶은 게 있다면 ‘일상을 잘하는 사람’, ‘일상의 달인’이 되고 싶었는데 그런 면에서 목공 자체는 너무 편하고 좋아요. 거북이공방에서 수강신청 할 때 분류되어 있는 ‘삶기술’이라는 말 자체가 너무 좋았고 제가 하는 나무 깎는 작업의 이유라든가 그런 지향점이 살면서 그런 삶기술들을 얻어서 풍성하게 지내고 싶다는 거예요. 이걸 할 때 작업자라고 하기도 뭐한 것이 ‘내가 쓸 것을 만들러 온 거다’라고 한 거라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다현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다보니, 저도 다시 깨닫게 되네요.

구하나

남, 40대
회사원

‘언플러그드우드카빙’ 활동모임 4년차
‘호루라기 만들기’ 워크숍 가이드

“어떤 때는 늦잠도 자고 싶은데
와서 작업을 하다보면 너무 즐겁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
사람들에게 쓰임새 있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터, 쉼의 자리 550×210×270mm

구하나 거북이공방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기계목공을 배운지 얼마 안 되었던 때라서 그냥 이런 데가 있구나라고 지나갔어요. 그게 아마 2014년 언저리인 것 같습니다. 그거 말고도 명사특강 몇 번 오고 그러면서 학습관에 대해서 알고 있었죠. 홈페이지를 들어와서 뒤지다 보니까 공방프로그램이 있었고 ‘깎아 만든 작고 낮은 의자’ 강좌가 있어서 그걸 공방의 첫 수업으로 들었어요. 굉장히 색달랐죠. 기계를 거의 안 쓰고 짜여지지 않은, 손으로만 하는 게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기계로 만드는 의자나 식탁, 좌탁 이런 건 규격과 길이를 다 재서 하는데 손으로 깎는 것은 깎고 싶은 대로 했어요. 손으로 하는 게 어떤 면에서 저에게 맞았던 것 같아요. 어렵지 않기도 해서 계속 해온 것 같습니다.

정다현 그렇게 첫 수업 하시고 이후에도 수업을 많이 들으셨어요.

하나 뭐 듣고 싶기도 한데 예전 것들의 반복이기도 하고, 그래도 또 들어도 좋은 것 같아요. 듣고 나니까 또 다르고. 첫 수업에는 뭐가 뭔지 모르니깐 듣고 흘렸던 것들이 소모임으로 작업하다 보니 의문이 생기고, 수업을 다시 들으면서 질문을 통해 익히게 된 것도 있어요. 또 수업 듣기 전에 나름 터득한 것들을 가지고 이런 거 아닐까 했던 것들이 수업하면서 맞다는 것을 확인한 것도 있고 그랬습니다.

다현 같은 수업을 또 듣는 방식의 연습도 좋은 것 같아요. 계속 다른 수업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같은 내용의 수업을 한 번 더 듣고 다른 질문들을 하고, 또 그것을 자신만의 학습 방식으로 만들어가는 것도 참 좋은 과정이죠. 하지만 수업보다도 활동모임에서 한 활동이나 프로젝트들을 빼놓을 수 없어요.

하나 언클라우드우드카빙(이하 언우카) 모임은 제 삶의 활력소예요. 즐거우니까 계속 하겠죠. 주말모임이니까 한번 씩 오는 게 어떤 때는 굉장히 귀찮아요. 늦잠도 자고 싶은데 와서 작업을 하다보면 너무 즐겁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음악 들으면서 나무 깎는 게 굉장히 좋거든요. 너무 그 시간이 소중한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작업할 수 있는 게 굉장히 감사하고 이런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것도요. 어떻게 보면 아주 좋은 기회인데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더 많은 사람들이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열린 공간인데 몰라서 사용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다현 선생님들 시작할 때만 해도 모임이 2-3개였는데 이제는 7개로 늘어났어요. 거북이공방이라는 공간 안에서의 즐거움은 스스로 찾아내야 하잖아요. 어떨 때는 친구가 없기도 하고, 혼자 깎는 시간도 있고 근데 그게 일상의 일부가 된 것 같아요.

하나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했었어요. 취미나 다른 활동들이요. 이십대 삼십대에 그런 걸 많이 했었는데 그런 게 즐겁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스트레스도 많았거든요.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부대끼는 것도 스트레스였고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간다든가. 그래서 한동안 모든 활동을 접고 은둔생활을 했었어요. 3-4년 정도 거의 모든 관계를 끊고 있을 정도였어요.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을 만나는 활동

이다 보니 사람들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실망감이랄까, 피로감이 있었어요.

다현 그런 시간 중에 공방에 오셔서 나무를 깎으셨네요.

하나 탈출구였죠. 1년 정도는 은둔생활 하다가 기지개를 켜는, 뭔가를 해보려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제가 예전에 집에 있는 좌탁이나 식탁 테이블을 만들고 할 때가 생각이 나고 마침 또 강좌가 있는 것을 알게 되서 얼른 신청을 했죠.

다현 지치셨으면 공방 모임도 부담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 솔직히 부담이 있었지만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기존에 했던 모임들이 뭔가 목적을 가지고 공동의 목표를 내세웠다면 너무 목적 없는 거, 그게 너무 좋아요. 구속적이지 않고 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말고.

다현 언우카는 거북이공방의 상징적인 모임이에요. 연령대의 특성일 수도 있고요. 30-40대 분들이 주축이 되어서 하는 활동이어서 그런지 활동들이 좋은 예시가 된 경우가 많아요. 달력 만들기부터 깎기 작업대, 책갈피, 호루라기 만들기 프로젝트...

하나 생각보다 많네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기본적으로는 종교적인 이유가 제일 커요. 제가 찬송 중에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위에 가득해져' 그 구절을 좋아해요. 저는 어려서 어렵게 자랐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저와 누나를 혼자 키우셨어요. 자라면서 주변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장학금도 주시고. 알게 모르게 자라면서 빚진 자의 마음이 생겼죠. 어떻게 보면 별게 아닌데, 어떻게 보면 별게 아닌 게 아니에요. 나눈다는 것이.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자, 나누면서 살자. 나도 자라면서 나눠주고 빌려주고 도움이 되는 삶을 살자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금전이 된 건 기술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도 나눌 수 있으면 나누고 '배워서 남주자' 이런 거요. 제 생각엔 거북이 공방의 취지가 그런 부분에서 잘 맞았던 것 같아요.

다현 거북이공방의 최종적인 상은 시민들이 직접 느슨한 연대를 통해서 관리도 하고 워크숍이나 프로젝트를 하는 것을 상상하고 있어요. 느슨한 연대와 가벼운 책임이 전제라면 시민이 운영하는 작업장은 어떻게 이루어 질 수 있을까요?

하나 그렇게 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수 있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구속력이 강해지고 목표가 설정이 되고 목표를 향해 가는 방법론에 대해 의견이 분분해 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트러블이 생기겠죠. 마음에 상처 받는 사람들도 생기고 많이들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누군가는 주도적으로 해야 되고 고정적으로 역할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의 관리는 기관에서 하고 소모임의 사람들은 맡은 바의 역할을 하고 지금의 형태처럼 그런 역할들을 균형 있게 나누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현 담당자의 역할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하나 지금 정도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직접적으로 많이 관여하지는 않고 전체적으로 이 정도의 수준. 반면에 모임에서 결정할 수 없을 때 어떤 부분에서는 주도적으로 결정해주는 것들이요. 이번 같은 공동의 행사가 있을 때 주관하는 것은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 어떤 특점 모임에서 무언가를 이끌어 간다면 어려운 점이 생길 것 같아요.

다현 그럼 학습자의 역할에서, 가이드 혹은 공방 선배가 되었던 경험에 대해 이야기 해볼까 봐요. '숲에서 나무 깎는 하루'에 공방선배를 해주셨을 때, 그렇게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 기본적으로 길공방 선생님들을 좋아하죠. 그게 제일 큰 이유인 것 같아요. 그런 삶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어렵פות이, 동경도 있었어요. 그렇게 지내시는 분들 보면 되게 부럽다기보다 뭐라고 해야 할까,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그렇지 못했는데 본인들이 생각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 그런 동경이 있어요. 인간적으로도 철민, 구름이 참 좋아요. 그게 가장 큰 거구요. 부담스럽긴 하죠. 강좌에 보탬이 될까 하는 것들이. 보탬이 되었다면 저는 더 바랄게 없고요. 이런 저런 것 중에 제일은 제가 싱글이라 그래요. 그런 활동들이 가능한 이유 중에 하나죠. 현실적으로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시간을 맞춰 활동하는 것이 쉽지가 않을 거예요. 물론 본인의 의지에 있기는 하겠지만요.

다현 라이프스타일에 맞춰서 일상이 디자인 되잖아요. 결혼이라든가, 직업 등으로 삶의 방식을 다양하게 선택하고 있으니까요. 길공방이 누군가에게 자극이 된다면, 선생님 또한 누군가의 일상에서 좋은 롤 모델이 되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 그리고 가이드의 역할이 너무 좋아요. 기본적으로 저의 성향이 그래요. 뭔가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 사람들에게 쓰임새 있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다현 지금 공방에서는 선생님에게 빚진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그게 되게 선순환되고 있다고 느껴요. 공방에서 그런 역할을 해주신 것 너무 감사드리구요. 앞으로도 길게 길게 함께해주세요.

길공방

철민
구름

길공방 작업자
‘나무깎는생활’ 강좌 진행 5년차

“수업하면서 뭔가 내가 가르친다는 생각도 물론 있어야겠지만 어느 순간 목공이 관계를 맺는 도구처럼 작용을 한 것 같아요. 저도 부족한 면이 있을 테고, 그런 걸 그냥 편하게 그냥 나눌 수 있는 작업자들이 많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수강생들을 작업자들로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구름 사년 째네요. 햇수로는 오년. 손가락 깎는 수업을 그 전부터도 하고 있었는데 학습관에서 하면 어떻겠냐고 제안해주셨죠. 다른 데서 할 때는 저희의 공구를 빌려주는 형식으로 했었는데 공구를 공방에서 구입하고 ‘장기적으로 수업이 이어지면 좋겠다’고요. 처음에는 걱정만 기대만 했었는데 담당해주는 기획자 분이 워낙 그런 과정을 같이 경험하고 고민을 같이 해주고 제안도 해주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곳에서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죠.

철민 저희가 작업을 시작했던 이유는 뭔가 작업의 기술을 잘 익혀서 그 기술을 가지고 경제활동을 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작업이 삶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생각했고,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만드는 행위를 시작하면서 작업자가 된 측면이 있었죠. 그래서 학습관에서 수업을 하고자 했을 때 작업 기술을 공유하기보다는 작업을 통해 삶의 변화를 만들어 가는 일을 함께 하고자 한다고 이해 했기에 흔쾌히 함께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작업자가 되었던 과정이나 경로가 조금 다르거든요.

정다현 공방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하게 된 활동모임이 ‘언플러그드우드카빙’(이하 언우카)예요. 그분들을 길공방 작업장에 초대해주시기도 하고 작업대도 같이 만들고 하면서 활동모임에 관심을 가져 주는 것, 강좌 이외에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철민 거북이공방에서 1년 동안 강좌를 마치고 평가서를 요구했을 때,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반복하는 대답이기도 해요. 작업을 통해서, 작업하는 시간에 경험한 것들이 일상의 영역으로 이동 되어서 일상을 변화시켜가고 만들어 가는 걸로 넘나들고 삶이 만들어 지길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기 위해선 작업이 일상성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수업 안에서의 경험이 일상으로 통합되는 방법인 거죠. 프로그램을 짤 때도 일상에서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방향을 잡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일상에서 작업을 한다는 것은 경제활동을 하는 작업자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필요한 것들을 만든다’라는 마음이 생기면 일상의 다른 영역에서도 부족하거나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만든다’ 라는 마음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만드는 작업이 삶을 만드는 데에까지 분명 연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누구나에게 ‘만드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건네고 있지만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누구나 다 그걸 받아들이는 것은 아닌데 그 당시에 조현진 선생님(수강생이자 활동모임원)이 기억에 남아요. 처음 수업에 오셨을 때는 ‘이런 걸 왜 해요?’ ‘여자 친구 따라서 왔는데 그냥 왔는데, 굳이 이렇게 해야 해요?’ 하는 질문을 많이 하셨죠. 그 이후에는 여자 친구는 안 오고 그 분은 꾸준히 오면서 욕실에서 박스 깎아 욕실작업장을 만들었다는 얘기도 하고 그랬었죠. 저희 메시지가 어떻게 전달이 되었는지 사실 잘 기억이 안나요. 느낌이나 바람들을 잘 주고받은 어떤 게 있기는 했겠죠?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분이 그때 당시 변화를 원하는 상태였던 것 같기도 해요. 그 전에 일하던 큰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자기 일이나 삶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시기였던 것 같은데, 그런 시기에서 적절하게 만난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다른 모임원들에게 ‘아직도 직장 다니냐’ 이런 얘기도 서슴없이 하면서 다르게

자기 삶을 살아왔으면 좋겠다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구요.

구름 의자 만드는 마지막 시간이었나. 조현진 선생님이 처음엔 ‘이런 거 왜 해요’ 하다가 마지막에는 혼자 제일 열심히, 다른 사람 도와주고 집에서 해오기도 하고 했어요. 열심히 하는 것이 좋아보여서 저희가 만든 깎기 작업대 사진을 보여줬는데 ‘이게 뭐예요? 별게 다 있네’ 하고는 웃어버렸죠. 이후에 그게 필요해졌고 관심이 생기면서 만들고 싶은 욕구도 생겨서 프로젝트도 같이 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수업하면서 뭔가 내가 가르친다는 생각도 물론 있어야겠지만 어느 순간 목공이 관계를 맺는 도구처럼 작용을 한 것 같아요. 저도 부족한 면이 있을 테고, 그런 걸 그냥 편하게 그냥 나눌 수 있는 작업자들이 많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수강생들을 작업자들로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서도 편하게 계속 깎으라고 일상적으로 그런 대화를 계속 던졌던 것 같아요.

다현 선생님들이 활동 사이사이에 자극해주었던 것들이 많았어요. 선물주신 ‘할매력’ 그걸 보시고는 ‘달력을 직접 만들어?’ ‘글씨를 직접 썼다고?’ 이러면서 나도 해보고 싶다며 거북이공방 달력을 만들기도 하셨죠. 나무 깎는 것에서 시작해서, 삶에서 내가 만들 수 있는 영역을 탐색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공방에서 공방선배처럼 다른 모임원 분들에게 자극을 주는 역할을 하고 계세요.

구름 끈대 되는 거 아니에요? (웃음) 작업이나 기술적인 이야기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이야기들을 점점 나누게 된 것 같아요. 수업에서 자주 만나면 저희 동네에서 만들어 가고 있는 ‘시시장’ 얘기도 하고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면서 서로 자극을 받은 게 아닌가 생각도 해요. 친해지면 작업 자랑하려고 우릴 기다리기도 하고 그러면 또 일상이 나뉘지기도 하고요.

다현 그러면서 ‘숲에서 나무 깎는 하루’ 수업에 선배나 보조자로 함께 하기도 했죠. 유연하게 하려고 해도 학습관의 강좌형식이 일정한 틀이 있는데 그 안에서 수강생과 강사자의 역할은 다르니까요. 근데 천기북 선생님이 ‘숲에서 나무 깎는 하루’에서 강사자와 수강생의 중간자적 역할을 처음 해주신 일이 있었어요. 어떠셨나요?

철민 거북이공방에서 하고자 하는 것이, 지역공방 이잖아요. 지역공방이 되기 위해서는 그곳에 작업자가 만들어지고, 작업자들의 관계가 형성되어야 하죠. 그래서 천기북 선생님께 역할을 주고 초대했던 거예요. 이제 그분도 흔쾌히 역할을 받아서 하는 것을 보면 그런 작업장을 같이 만들어 가고 있구나 생각하고, 그렇게 서로 가르쳐주고 배우는 거북이공방 작업자가 되어가는 모습을 보면 기분이 좋죠.

구름 처음 수강하는 분들에게도 좋은 자극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한번 배우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강좌로 시작하고 활동모임을 통해 계속 작업을 하다가 또 다시 강좌를 통해서 자신이 작업했던 것들을 가져와서 나눌 수도 있었어요. 일상적으로 자기 작업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실제로 같이 경험하면서 서로에게 더 좋은 자극이 되지 않을까 했죠. 이번 겨울에도 초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작업물도 나누고 원데이에서는 소풍처럼 열어놓고 해도 좋지 않을까요?

철민 어쨌든 가르쳐주는 사람으로서 새겨야 하는 태도가 있고 그런 측면이 부담스러울 것 같기는 한데, 사실 그런 부담은 저희한테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작업자가 되기 위한 정식코스를 밟아 활동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태도를 만들어 가는 중이라고 생각해요. 계속 수업을 진행하면서요. 그런 측면에서 수업을 진행할 때 어려움을 겪기도 해요. 내가 작업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기능적으로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수업에서 드러났을 때 힘들고, 부끄러울 때도 있어요. 부족함을 많이 느낄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부족함을 채우기 위한 다른 노력들을 하면서 꾸준히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분들도 그런 기회들이 있고 그 기회 속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고 보완해 나갈 수 있는 계기나 환경이 주어진다면 충분히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그랬던 것처럼.

다현 이제는 기회가 필요 하겠네요.

철민 부족함을 알아차리는 것, 부족함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늘 부족함을 느끼는 거니까요. 그런데 부족하다고 그런 기회들이 안 생긴다면 거기에서 머무는 건데, 작은 기회들이 주어지면 그걸 스스로 채워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공간에서 그런 것들이 문화나 환경이 될 수도 있는 것이구요.

다현 선생님들의 그런 고민들 이후에 <장인>모임을 여섯잡아요. 이번이 벌써 3기예요. 거북이공방에서 나무깎는생활을 진행하시다가, 책을 읽는 것과 나무를 깎는 작업을 결합해서 기술과 생각과 의견을 나누는 워크숍을 친구들과 하고 계시죠. 모임을 열게 된 계기랑, 모임을 진행하시면서 그런 식의 교육방법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들려주세요.

철민 뭔가 일을 하든 삶을 살아가든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이 생기면 ‘만든다’라는 태도, ‘나한테 맞는 방식으로 만든다’라는 태도가 있는 것 같아요. 배우의 방식이든, 물성을 가진 물리적 환경이든, 저에게 필요하니까 장인 모임을 만든 거예요. 어떤 필요였다면 사람들과 작업의 의미를 나누며, 뭐든 만드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할 건넬 때에 말을 잘 건네고 싶은데 잘 건네지 못하고 있다는 부족함을 느꼈어요. 학습관에서 ‘나무 깎는 생활’ 강좌를 장기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다보니 나누고 싶은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는 직조를 하듯이 조리 있게 잘 얘기하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부족함을 느꼈던 거고 그것을 잘 하기 위한 나를 훈련시키는 학습방식을 만들었던 거죠. 그랬을 때, <장인>이라는 책에 담긴 내용들이 작업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처럼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 담겨 있었고 그 책을 반복적으로 읽어보고 싶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 텍스트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읽고 삶의 영역으로 어떻게 가져가는지 확인해보고 싶었고 그런 과정이 나의 학습적인 측면 뿐 아니라 삶에 있어서도 의미 있는 내용이 되는지 확인해보고 싶었죠. 확인하고 스스로 학습하기 위한 방법으로 친구들과 초대해서 워크숍 자리를 만든 거예요.

다현 친구들과 서로가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같이 배우기 위한 자리네요.

철민 네, 저런 텍스트를 제공하는 어떤 다른 학습형태가 없잖아요. 저한테 맞는 형태요. 없으면 그냥 만들어 보는 거예요. 배움의 방식도 그렇고 꼭 물건만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이런저런 방식 생각해서 스스로 만들어 보는 거죠. 평생학습관에서도 평생학습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그런 시도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자기에게 필요한 학습을 만드는 것. 제공된 것들을 소비하듯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들고 싶은 학습형태를 설계해보고 만들어보고 하는 적극적인 배움의 방식들까지 그런 실험이나 방법들이 다양하게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학습관에서 작업장을 중요한 사업으로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작업장에서 일어나는 경험이 학습관에 다른 영역으로 많이 확장 되면서 영향을 줬으면 좋겠어요.

구름 저희가 계속 거북이공방에서 꾸준히 수업을 했었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저희한테도 그런 필요가 생겼던 것 같기도 해요. 같은 수업들이 매년 있는데 그걸 같이 평가하고 고민하고 방향을 정하는 과정 속에서 강사로서 고민했던 지점들에 대해 우리 스스로도 좀 더 배우기도 했어요.

철민 부족함을 확인시켜주는 측면이 있죠. 반복하면 할수록 뭐가 나한테 '부족하구나'를 확인시켜줘요.

구름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 만남이 이어지는 것이 좋아요. 활동모임이라는 좋은 작업방식이 있고, 수강하는 사람들이랑 만날 수 있는 공간과 커뮤니티가 있잖아요. 저희가 기술을 알려드리기보다는 '같이 좀 더 생각하면서 만들어야겠다' 하는 것이잖아요. 우리도 계속 만드는 데, 만드는 것만 아니라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자고 이야기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거북이공방의 활동을 통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었죠. 자극을 받기도 하고요.

철민 자존심 상한 일이 있었어요. 별통만들기 프로젝트요. 그때 결과물을 만드는 작업자로서의 과정은 즐거웠는데 작업자를 어떤 기능적인 역할에 한정시켜서 생각할 수도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자존심 상하는 경험이었죠. 그런 오해나 생각들을 바꿀 수 있는 좀 더 적극적인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실 해봤는데, 잘 못했고 잘 못했으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다현 선생님이 받아들이고 뭔가를 시도하시는 것들을 보고 저도 많이 배웠어요. 별통만들기 프로젝트 이후로 장인모임도 해주시고 강좌 진행하실 때 오리엔테이션에 '손의 인문학'이라는 챗터를 넣은 시도가 저희에게도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앞으로 할 수업에는 오리엔테이션과 작업자들과의 대화시간을 더 강화하려고 하는데 작업에만 집중하고 우리가 이야기 하고 싶은 무형의 것들이 잘 전달이 되겠지에 대해 간과하거나 안일했던 것도 있었죠. 거북이공방에 더 다양한 사람들이 오려면 더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철민 별통만들기 프로젝트 얘기를 하자면, 프로젝트 설계 자체가 생

각은 상위고 손은 하위에서 뭔가 기계적으로 기능만 하는 것 같은 분리되어있는 사고가 있어요. 별통에 대해서 고민하는 영역이 따로 있고 목공 작업자에게는 그런 것들을 실현시키는 역할로 분리시킨 거죠. 분리된 것들이 충돌하는 상황이 생겼고, 필요를 찾고 그것을 디자인해서 나무를 이용한 결과물로 실현시켜내는 그런 프로젝트는 다른 곳에서도 많이 하죠. 저희도 많이 하고요. 자기 삶속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캐치해내고 필요한 것을 만드는 과정을 공유만 해도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디자인 해온 걸 받아서 단순히 실현시켜주는 것과는 달라요.

다현 이제 더 이해가 되었어요.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 손과 사고가 자연스럽게 일치되었던 프로젝트의 의미를 말씀해주신 것 같아요. 그런 작업방식이 거북이공방 프로젝트에서도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하고요. 다음 프로젝트가 기대 됩니다.



장영환

남, 30대
점점우드워크 운영
목수
‘목공구배우기’ 강좌 진행 4년차

“내 작업장이 아닌 다른 곳에 가서 수업 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거북이공방에 가 있으면 ‘어디 밖에 나와 있다’는 생각보다 익숙하고 편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 작업실에 있는 것처럼.”



장영환 저는 사실 학습관에 공방이 있는 지도 몰랐는데 ‘움직이는부엌 프로젝트’를 함께 하게 되어 자연스럽게 오게 되었죠. 정확히 기억은 잘 안나는데 관에서 하는 강좌에 대한 상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질차나 격식 있는 그런 느낌에서 수업을 할 거라는 기대를 했었죠. 예를 들면 어떤 곳들은 재료가 필요하다고 해도 결제하고 물건을 사오고 하는 준비과정들이 너무 길어서 수업 끝날 때쯤에야 직소날이나 드릴비트가 배송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공간의 사용도 안정되지 않은 곳들도 많았어요. 공구를 이동하고 배치하는 데에 시간이 다 들고, 원래 공방 자리가 아닌 곳에서 수업을 할 때 청소나 관리 등이 되게 불편했었는데 거북이공방은 그렇지 않은 것들이 좋았죠. 공방이라는 공간이 기관에 있다는 것이 안정감 있고 좋았던 것 같아요.

정다현 다른 곳들에 비해 갖춰진 편이긴 했어도, 선생님이 공방에 결합했을 초기에 공간 구성을 같이 해주셨잖아요. 선생님이 공방에 처음 오셨을 때는 미흡한 것이 많았을 텐데 기초목공수업 구성부터 공구구매, 세팅까지 해주셨죠. 어떻게 생각하면 ‘나 혼자 너무 큰 책임을 맡았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함께 하게 된 계기나 이유가 있었을까요?

영환 이유 이런 것 보다는 공방이 아니어도 작업실 세팅을 하면서 지낸 기간이 제법 있어서 공간을 봤을 때 일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세팅을 한 사람이 어떤 생각으로 해놓았는지가 대략 보여요. 작업물이 좋은 사람은 높은 확률로 작업장 세팅이 굉장히 잘 되어 있거든요. 거북이공방을 처음 봤을 때 세팅에 대해서는 고민이 부족한 느낌이 들었었죠. 장비가 미비한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위험했고 이 상태로는 수업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이것만 해놓으면 좀 나아질 것 같아 손대다 보니 그렇게 몰입하게 되었던 거예요. 제 공방만 해도 이년이 지나 아직까지도 세팅 중이지만 할 일이 끝이 없습니다. 오히려 계속 늘어나는 기본이에요. 거북이공방도 마찬가지로. 하다보니 ‘어디까지 내가 해야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죠. 그래도 지금은 어느 정도 작업이 가능한 공간이 되어서 안심이 되기는 하는데 그 당시에는 월 하나 만들어 놔도 소용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그를 만들어 놔도 다음 시간에 오면 박살나 있고 없어지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으니까요. 지금도 있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포기하거나 내려놓은 것도 있죠.

다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까지 되고 있구나에 대한 기쁜 보람이 있지 않았을까요?

영환 있죠. 그 당시의 제 작업장이 거북이공방보다 열악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북이공방이 작업하기 더 불편했어요. 장비만 있었지만 작업은 불편한 세팅이었는데, 조금씩 고쳐가면서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안심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생겨서, 그렇게 매만지다보니 수업이 가능하게 되었어요. 사실 그래요. 내 작업장이 아닌 다른 곳에 가서 수업 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거북이공방에 가 있으면 ‘어디 밖에 나와 있다’는 생각보다 익숙하고 편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에게 자연스러운 공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내 작업실에 있는 것처럼. 남의

집에 간 것 같은 기분은 아니죠.

다현 정성들여 봐주신 것들이 다른 강사들과 수강생에게 좋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해요. 만들어 놓은 것이 비록 다음 주에 사라질지라도 다양한 사람들이 그곳에 머물면서 누군가의 정성과 수고를 모르지는 않아요. 다른 강사님들도 공방에 각자 다른 방식으로 열정을 쏟게 되기도 했어요. 지금도 다른 작업자들이 공방 세팅이 잘 되어 있다고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작업자를 넘어서서 이제는 교육자로서 고민하시게 된 것에 대해 이런 활동들을 평소에도 해보고 싶었는지, 교육적인 관점에서 생각해보실 때 어떤가요?

영환 교육은 제 공방을 열면 하고 싶었던 거였어요. 가르치는 것에 대한 나름의 철학은 있는데, 공방을 초기에 세팅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사명감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고 목공이 가능한 공간. 수업이 가능한 공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그때 생각하는 가장 나은 방법을 찾았던 것이 제가 한 일들이었어요. 말씀하신 것만큼 내가 대단한 일을 한지는 모르겠네요.

다현 그것이 또 다른 형식의 책임감인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수업만 하고 가는 공간일지, 아니면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작업을 하기에 편한 공간으로 만들어 갈 것인지, 라는 고민을 하는 것. 그게 바로 거북이공방에서 작업자들에게 요구하는 태도인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 모임을 하고 가더라도 작업만 하고 갈 것 인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 공방을 만들어 갈 것에 대한 상상이나 주도적인 작업을 찾아서 할 것인지. 이런 생각들 말이에요. 모두가 그런 마음가짐으로 공방을 활용하고 사용하면 그게 공동작업장이 될테니까요. 거북이공방은 누구의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도 그 공간을 나아지게 하는데 우리 같이 정성을 다 했으니깐요.

영환 우리 다 같이 힘들 때였어요. 암흑의 시기였죠. 예산도 없고, 관리자님의 이해도도 높지 않아서 재료나 도구를 구매할 때도 무엇을, 왜 사야 되는지 오래 얘기하고 설득하는 그게 어려웠죠.

다현 그래도 그 시기가 있어서, 이제는 모두들 이해도가 높아지셨고 물건 구입하는 것도 그때보다 수월해졌어요. 그때가 되게 중요한 시기였어요. 선생님 손길이 다 닿아서 선생님님의 섬세함 덕을 보았습니다.

영환 그만 좀 하죠.(수줍음)

다현 목공구배우기 강좌를 삼년 동안 진행하셨어요. 목공구배우기 강좌에서 배운 기술을 기반으로 이제 학습관에 활동모임이라든가 주도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삼년 동안 하고 나니 새로운 고민이 생기지 않아요. 그 중간에는 개인 공방도 오픈하시고 했는데, 거북이공방과 개인공방 운영이 상호 보완이 되는지, 아니면 어려운 점이 있는지가 궁금해요.

영환 다양한 연령의 분들을 뵙는 것이 새로운 경험이죠. 우리공방에서는 따로 연령제한을 두지 않았음에도 거북이공방에 비해 연령대가 낮아요. 20-30대분들이 주로 오시죠. 거북이공방은 퇴직한 분들이 오시니까 그런 것에 대한 경험이랄까? 내성, 주의할 점에 대해 고민하게 돼요. 이런 연령대의 분들을 만날 기회가 많지 않아요. 그렇지만 사실은 많이 어렵기도 해요. 어떻게 맞춰가야 할지 고민하는데 쉽지 않죠.

제 공방 같은 경우는 커리큘럼에 틀을 어느 정도 잡고 가니까 자유로움에서 덜 할 수 있다면, 거북이공방은 정통목공이 아니라도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해보는 것은 되게 좋은 부분이에요. 사람이 하고 싶은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전부 파인우드 워킹을 원하는 것은 아닐거예요. 반면 적정기술이라는 것은 모두에게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제 공방에서 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거북이공방에서 해볼 수 있는 것이 좋아요.

다현 서로 성장 할 수 있는 그런 관계. 같은 지역에 공감할 수 있는 이런 파트너십들이 장기적으로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영환 근데 거북이공방의 수강생들은 여기 잘 안와요. 아무래도 자유로운 분위기를 좋아하시니까요.(웃음)

다현 교육이라는 것이 그렇게 어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한데,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것이 작업자이기도 한 선생님에게 어떤 의미인지?

영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바꾸는 것 아니니까요. 목공을 배우고 싶은 사람이 나를 찾아온다면 안전하게 목공을 할 수 있는 기본 기술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뭔가를 많이 해주려는 고민보다는, 이를테면 제가 좋아하는 가구 디자인 이라도 비슷한 맥락인데 처음에는 예쁜 줄 몰랐는데 쓰다보니깐 은은하게 예쁜 가구요. 공간을 잡아먹기 보다는 마치 원래 거기 있었던 듯이 자연스럽게 삶에 즐거움을 주는 가구. 제가 하는 것도 그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화려하고 트렌디하기 보다 잔잔하지만 분명하게. 그 사람들의 삶에서는 그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보면 '참 좋았구나' 라고 생각하게 하는 수업을 하고 싶어요. 제 색을 많이 묻히고 싶지 않아요. 목공이란 게 사실은 정석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근래에도 목공기술의 정석을 찾으려는 목공서적들도 나오고 있지만 기술은 그들 개인의 경험이 취합된 걸 거예요. 제 선에는 저에게 가장 타당한 것들로 가르치는 것. 누구를 가르치려면 설명할 수 있게 충분히 이해하는 것. 그런 면에서 잘 하려는 욕심이 있어요. 한편으로는 교류가 없는 목수를 보면 너무 외로워 보이기도 해요. 작가를 하면 혼자 있는 시간이 중요하고 좋기도 하고 하지만 저는 그런 걸 많이 해봤으니깐 이제는 교류를 많이 해보고 싶어요. 제가 가진 목공의 어떤 부분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요. 학습관에서 수업을 할 때 '나도 좋고 배우는 분도 좋은 것'을 하고 싶어요. 이게 되게 어렵고 살면서 한번이라도 그렇게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김연암

남, 60대
사업체 운영 후 퇴직
'화요거북이' 활동모임 4년차

“거북이공방에서는 틀려도 되고, 늦어도 되고 도와가며 하면 하나하나 배우고 그럼 내가 고집 세운 것이 틀렸구나 하고 스스로 느끼는 거지. 기회를 주고 계속 할 수 있게 동기부여를 해주는 것이 좋아요.”



스툴 체리나무, 아우로 No.129 오일, 220×220×500mm

김연암 거북이공방에는 2016년 초부터 왔던 것 같아요. 그 전부터 만들고 직접하고 이런 것들을 좋아했어요.

정다현 그전에도 어떤 활동을 하셨나요?

연암 특별한 활동은 없었고 평소에 집에서 손으로 하는 일은 내가 다 하고 그랬어요. 아는 형님이 별장을 지었는데, 물론 큰일은 전문가가 하지만서도 그 집에 일이 생기면 내가 없으면 그 집을 유지할 수 없어요. 전기부터 수도꼭지 바꾸는 것까지. 그런 데에 내가 취미가 있었어요. 내가 목공을 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리고 내가 빵 만드는 것도 좋아하고 그러던 중에 아내가 컴퓨터 배우러 학습관에 다니면서 나에게 평생학습관 가면 공방이 있다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가보라고 추천해줘서 오게 된 거죠. 실은 공방을 접한 건 군대생활을 할 때, 미팔군에서 복무를 했거든 그때가 1974년도 인데 크래프트샵이라고 해서 목공실이 아주 잘 되어 있었어요. 그때 이거보다 좋은 시설이 다 되어 있었죠. 근무 외 시간에 그 공간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 사진을 찍으면 인화도 하고 그런 크래프트샵이었어요. 나는 그런 경험들이 있었고, 와이프의 소개가 맞아 떨어져서 오게 된 것이죠.

다현 그런 관심들이 있었다면 동네에 있는 다른 공방에 갈 수도 있었을 텐데 거북이공방에 어떻게 오게 되었어요.

연암 아무래도 비용부담이 있고, 경험이 없는데 사설공방은 처음부터 선택하기가 좀 그랬고. 여기는 모든 공구를 하나하나 천천히 배우고 하니깐 많은 도움이 되었지요.

다현 거북이공방은 공방장이 없는데, 그것에 대해 아쉬운 점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연암 하다못해 공방을 유지관리 해주는 사람만이라도, 여러 사람이 되다 보니까 관리가 잘 안되어 있고 유지보수도 어렵고 한 것 같아요. 기계를 여러 사람이 쓰다보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공방장은 아니어도 누군가가 유지보수를 꾸준히 주기적으로 해주면 내부 정리도 되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환경이 좋아야 쓰는 사람이 제대로 쓰는데 너저분하면 쓰는 사람도 막 쓰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운영상에서 투자를 해서라도 방법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어요.

다현 선생님이해보시는 건 어때요?

연암 역할이 주어진다면 시간을 때우는 의미로라도 나는 좋지. 할일이 없으니까, 실은 내가 12월 31일에 퇴직을 해요. 만 66세야. 회사를 오래 다녔지.

다현 그동안 정말로 고생 많으셨어요. 공방장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면 거북이공방 초창기에는 공방장의 역할로 상주 관리해주는 분이 수업도 하고 모임도 꾸리고 했는데, 그 분이 개인사정으로 그만두시게 되었었어요. 그 분이 사라지고 나니까 그분과 함께 했던 수업과 모임들도 사실상 함께 가기 어려워졌죠. 사설공방은 그 공방이 공방장의 것이니까 그 사람이 관리를 하지만 기관에서 운영하는 공방은 시민이 주인인 공간인거예요. 공방장

이 한 사람일 때의 의존도와 그 사람이 없어졌을 때의 타격이 커서 공방장 체제를 버리고 시민들이 직접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공방으로 만들자는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3-5년 정도는 기초교육을 하자라고 방향을 틀었고 그 이후에 선생님 같은 분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어요. 누군가를 고용해서 '정리를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공방운영의 답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누구 한 명이 맡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함께 여럿이서 힘을 모아 이 공방을 꾸려가기를 바라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연암 내가 적당한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기획은 참 좋은 것 좋은 것 같네요.

다현 선생님 같은 분의 모습을 보고 기획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연암 나는 시간이 자유롭고 나의 생업을 의지할 일도 아니고 봉사하는 기분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우리 같은 사람들 그런 취미생활이 생기는 것도 좋고.

다현 이제는 수강생들, 활동모임원들과 특강이나 프로젝트도 같이 준비하고 기획해보고 싶어요. 인터뷰를 하는 것도 이렇게 제대로 대화해보고 싶었어요.

연암 나도 젊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활동 하는 게 좋아요.

다현 다른 일상에서는 직급이 있는 어른들을 많이 만나는데, 공방에서는 나이를 떠나 동등한 작업자니까요.

연암 내가 이해하기로는 학습관에서 막 가르치는 것보다도 동기부여를 하려고 애쓰는 것 같아요. 맞나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와서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 잘하든 못하든 기회를 주고 계속 할 수 있게 동기부여를 해주는 것. 그게 좋은 교육인 것 같습니다. 억지로 가르쳐서 무얼 하겠어요. 지난 프로젝트(평상만들기)에서도 틀린 것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잘 할 수 있게 자꾸 독려해주는 것, 그게 거북이공방의 운영방침인 것 같은데 그게 난 참 좋아. 자기 고집만 세우면 안돼요. 거북이공방에서는 틀려도 되고, 늦어도 되고 도와가며 하면 하나하나 배우고 그럼 내가 고집 세운 것이 틀렸구나 하고 스스로 느끼는 거지. 그런 기획을 잘 해주신다면 기꺼이 참여 하겠습니다.

다현 마지막으로 손작업 취미가 선생님 일상이나 삶에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 의미를 가지는지 궁금해요.

연암 나 같은 경우는 내 친구들에게 이런 걸 한다고 얘기하면 좋아 보인다 얘기하는 친구도 있지만 뭐 그런 걸 하냐고 하는 친구도 있어요. 살아갈 때 자기 스스로 해결 할 수 있는 것이 생기면 삶이 윤택해진다고 느껴요. 집에 내 작품 갖다놓고 쓰면 기성품보다 완성도는 떨어지지만 자랑도 할 수 있고, 내 스탠드는 디자인도 내가 했는데 참 뿌듯하고 자식에게도 물려주고 싶고 하면서 삶이 풍요로워진다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취미생활이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스트레스가 쌓여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눈에 보이니까.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해낼 수 있을까' 라고 가지는 의문에서 다 마치고 정말 그걸 해냈을 때의

그게 될 때의 성취라든가 자신감이 생길 때가 좋죠. 은퇴 세대들은 삶의 시간을 의미있게 활용할 수 있는 것, 그렇게 주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면 감사할 수 있는 일이에요.

다현 사실 2015년은 정말 막막했거든요. 과연 공방이 운영될 수 있을까?, 시민작업장이 될 수 있을까? 반신반의 했었는데, 선생님 같은 분들이 나타나주시고 하니깐 공방은 미래가 밝습니다. 행복한 새해 맞이하세요. 감사합니다.

두드림

한덕우

김주봉

심명섭

60대
은퇴자 심층사
'두드림' 활동모임 3년차

“친구들하고도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앞으로 어떤 작업을 할 건가에 대해 시간을 같이 공유하다 보니까 너무 즐거운 거예요. 나이가 70-80이 되더라도 창의적으로 다 생각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고 봐요.”



상어모양 원목 트레이 한덕우, 장미목, 레드하트, 올리브오일, 137×557×20mm

김주봉 공방에 온 순서대로 말하자

한덕우 그럼 나부터. 퇴직하고 나서 마땅히 할 거 없이 집에 있었지. 난 퇴직하고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저기 찾아보다가 오픈 데이를 보고 오게 되었지. 와가지고 기억날지는 모르겠지만 모니터 다 이를 만들었어요. 처음에 아무거나 이용을 해서 만들어가라 해가지고 온 김에 아무생각도 없다가 나무를 보니까 아이고 이걸 뭘 만들어야겠다 싶어서. 마침 TV보는 의자에 앉아서 컴퓨터를 보다 보니까 너무 낮은 거 같아서 '받침대 하나 더 만들어야겠다' 했거든. 즉흥적으로 만들었는데 또 다현 선생님이 워낙 잘 만들었다고 칭찬을 하는 바람에 이제 또 거기서 용기를 얻어서 '아 여기 좀 자주 나와서 시간을 좀 보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지. 갈 때 아주 '잘 놓고 간다. 고맙습니다'하고 갔는데 그 다음 주가 기다려지더라고. 집에서 그 얘기를 했더니 되게 좋아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후에 와보고 다니다 보니까 교육도 받게 되고, 그래서 마침 첫 번째 강좌 할 때 친구와 얘기하다 보니까 '어 그런데 있냐' 라고 해서 공방 교육도 같이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다보니까 또 다른 친구가 합류했고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까지 해온 것 중에서는 참 잘했다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정다현 맞아요. 그 말 기억나요. '잘 놀다갑니다' 그 말이 참 좋았어요.

주봉 내 차례야? 나는 그래요. 공방 오기 전에 집을 수리해야 하는데 뭐 드라이버 정도는 돌리는데 전기가 돌아가는 것들은 사용하기가 겁이 나고 그러더라고. 공구 쓰는 것도 좀 배우고 싶고, 집을 고치려면 나무를 깎거나 다듬거나 박거나 뭐 이런 거를 해야 하니까 그런 거를 하고 싶었어요. 그러다가 한덕우 선생님이 이런 곳이 있다고 해서 보니까 굉장히 편안하고 또 좋더라고. 개인 사설 목공방은 좀 좋아요. 근데 여기는 널찍하고 만나는 사람들도 전부 좋은 사람들이고 해서 좋은 인연이 되었지요. 또 여기서 배운 걸로 주말마다 시골집 고치는데 굉장히 재미있게 활용을 하고 있어요. 목공뿐 아니라 여기에 있는 책으로 배운 정보가 목공과는 상관없는 타일붙이는 거 같은 건데 굉장히 생활에 유용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심명섭 그래요. 셋이 다 친구고 같은 모임에 있고 퇴직을 다 같은 시기에 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인테리어나 목수 쪽에 관심이 많았었고 우리 아버지가 대목수였으니까 그런데 영향을 받은 받았지요. 집을 고치는 것도 봤고 다 했어요. 대패 사용하는 법, 톱질하는 거 문짝 만드는 거 다 보고 그랬거든요. 평소에 관심도 많았고 퇴직하기 전에 이미 서울로 인테리어 학원을 다녔어요. 수강을 끝내고 있다가 헤펠레를 또 1년 동안 다녔었지. 우연한 기회에 통화를 하다 보니까 두 분이 이곳을 다니더라고요. 왔다가면 하루가 즐겁고 하니까, 내가 원하는 소품도 만들 수 있고 결과물이 나오니까 힐링도 되고, 친구도 자주 만나서 얘기도 하고 선생님들도 좋으니까 많이 만족감을 느끼고 있어요. 여기서 어느 정도 기구를 활용할 수 있으니까 활용해서 집에 원하는 것도 해줄 수 있고 친구들 만들어 줄 수도 있고 그런 기회가 되서 너무 즐거운 것 같아요. 삶의 우울증 같은 것도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크거든

요. 이 목공이라는 게 단시간 내에 작업 되는 게 아니고 시간을 가지고 작업하기 때문에 치유의 시간도 될 수 있는 거고. 친구들하고도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앞으로 어떤 작업을 할 건가에 대해 시간을 같이 공유하다 보니까 너무 즐거운 거예요. 나이가 70-80이 되더라도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고 봐요. 이곳에 와서 그래서 참 즐겁고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용할 수 있게 된 거, 해준 거를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기회가 되면 교육도 받고 그렇게 해서 모든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심도를 깊게 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현 선생님들이 공방에서 중심을 딱 잡아 주시니까요. 선생님들이 다른 모임의 롤모델이세요. 저희도 나중에 나이가 많아지면 선생님들처럼 내가 진짜 좋아하는 친구들이랑 같은 취미를 공유하고 같이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성취를 느껴가는 것을 할 수 있겠구나, 자신감이 생기기도 하고 약간 희망이 생기기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늘 이렇게 계셔주셔서, 다른 모임에서 만나는 분들도 선생님들을 좋아하고 본받고 싶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덕우 열심히 해야겠네.

다현 활동모임을 꾸준히 하시다 보니까 시간도 쌓여서 선생님들이 저희 학습관에서 참여해주신 활동도 많아요. 벤치도 만들어 주셨잖아요. 저희 지금 모두의숲에서 쓰고 있어요. 축제 때도 너무 좋았던 게 세 분 다 나오셔서 자리를 지켜주시고 다른 모임원들과도 이야기 나누고 하셨는데 그런 활동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우 우리 셋이 다 참여하면 좋은데, 멀리서 집을 짓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정이 잡혀있다 보니까 시간 못 낸 경우도 있어서 조금 아쉬운 건 있었지. 그런데 시간 잘 내보면 되겠죠.

주봉 참여하고 좋지. 그런 행사를 같이하고 그러는 게 나이 먹고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명섭 공동체 작업을 하는 것은 바람직 한 거예요. 우리 셋이 친구지만 다른 사람하고 교감할 수 있는 게 우리한테도 도움 되고 그분한테도 도움 되고 정보도 교환하고 그러니까 더 좋은 취지가 될 수 있어요.

주봉 하나라도 젊은 사람하고 만난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덕우 조현진 선생님은 강좌나 교육을 같이 받고 그래서 알고 있는데, 그분은 진짜 요식업하면서 와서 하고 그러는 거 보면 좋은 취미하고 있다 싶더라고요. 제주도 꽤 많은 것 같고.

다현 언제든지 만나실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게요. 제가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거북이 공방에서 일하면서 너무 좋았던 것이, 사회에서는 선생님 연배의 분들은 상사로 밖에 못 만나는 거예요. 상사로서 어렵거나 그런 관계요. 특히 남성분들이 그렇거든요. 그런데 공방에서 선생님들을 만나 보면 일단 너무 친절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는 그런 상하관계가 아니니까 더 재밌게 얘기할 수 있죠. 다른 활동모임분들도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관계들이 생길 수 있게 선생님들이 주도하는 프로젝트나 워크숍을 한번 다른 활동모임원

들에게 열어봐도 재밌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선생님들은 어떠세요?

덕우 저번에 항공동사진관에서 사진 찍을 때 천기복 선생님이 가르쳐주어서 호루라기를 만들어 보긴 했었어요.

주봉 그걸 천기복 선생님이 가르쳐 준거야?

덕우 조현진 선생님하고 둘이서 가르쳐 준건데, 그 위에 사이즈까지 다 적어서 알려주고. 그거 보고서 깎기 하면서 악기 쪽으로 어떻게 접근을 했나 놀랍기도 했는데 호루라기가 소리 나는 거니까. 소리가 나고 안 나고를 서서히 깎아가면서 느껴야 한다고 자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자기네는 실수를 많이 하고 실패를 많이 했다는 거지. 나는 첫 번째 해서 실패를 했어. 처음에는 관심 없었어. 그런데 천기복 선생님이 한사람 구멍 뚫는 거 알려주고 있더라고. 그러면 나도 한번 해볼까? 해서 나무를 하나 가지고 와서 뚫어보는데 오히려 여선생님 뚫는 걸 내가 봐주고 내거는 못했어. 그러다 보니까 나도 뚫어보아야 하고 뚫었는데 첫 번째 뚫은 게 삐딱하게 뚫은 거야. 정중앙에 안 뚫고. 에이버렸다 이라고서는 그걸 또 버릴 순 없으니까 치우쳐진 대로 하자, 그리고 내가 흠을 팠더니 내 뒤에 오는 사람들이 전부 이렇게 뚫었어요. 다들 왜 이렇게 뚫었냐 해서 '나 잘못 뚫었어요' 했지. 천기복 선생님이 '다들 왜 이렇게 뚫었어요' 하는데 내가 또 미안했지. 그리고 나서 천기복 선생님이 그러는 거여. '선생님 작품 만드는 거 언제 기법 가르쳐줘요' '뭐 기법을 가르쳐줘, 아무것도 없는데' 나비장 하는 거를 배우고 싶다는 거지. '나는 나비장 두 번째 해보는 거여' 해도 가르쳐달라고 해서 그러면 뭐 기회잡자 그러고 말았는데 '그래도 해주세요' 했는데 팀별로다가 공유해가지고서 기술 교류하자 그런 얘기는 한번 하긴 했었어요. 나도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누구한테 전수해줄 만한 그런 건 아니어서 내가 선뜻 대답은 못했는데, 생각을 해보긴 했어요.

다현 민주 선생님이랑 아까 인터뷰했는데요. 민주 선생님이 사실 목공에 대해 잘 모르고 공방담당자를 시작했는데요. 강좌 듣고 하다보면 하나하나씩 알게 되지만 사실 자신감이 정말 없었어요. 목공에 대해 잘 모르는데 매번 수강생들이 와서 물어보거나 강사 선생님이랑 대화 중에도 잘 못 알아들으니까요. 그러다 민주선생님 나름대로 이렇게 배우고 계속 찾아보고 하다가 오픈데이 때 정말 처음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 그런 분들 오셔서 '이건 뭐예요? 여기는 어떤 데예요? 이걸 어떻게 쓰는 거예요?' 라고 할 때 기본적인 톱질, 드릴 질을 그분들한테 알려주시면서 많이 자신감이 생겼대요.

덕우 나도 초반에 오픈데이 나왔을 때는 톱질이라 던지 끝 작업하는 거는 나의 일보다도 많이 가르쳐줬어요.

다현 맞아요. 많이 알려주셨죠.

덕우 보면 답답해. 또 알려주고 싶기도 하고.

다현 딱 그런 정도 아닐까 싶어요. 거북이공방이 다른 사설공방처럼 높은 기술을 알려주거나 좋은 장비가 있는 곳이 아니에요.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는 대로 편안하게 동네 사랑방처럼 누구나 와서 즐겁게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죠. 강사 선생님이 알려주는 거 말고

그냥 주변 동네 친구작업자가 알려주는 것이 뭐라고 할까 덜 거리낌이 없다고 해야 하나? 그런 것 같아요. 선생님이 오픈데이 때 처음 오신 분 알려주셨다시피 그분도 부담 없이 선생님이 알려주시면,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면서 배우고 했잖아요. 앞으로 공방에서는 그냥 조금이라도 더 아시는 분이 정말 초보자분들한테 뭔가를 알려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드려고 해요. 내가 초보자였을 때 생각해보면 그런 것도 도움이 많이 되니까.

명섭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생각할 때는 공공기관이나 지역주민이 많이 참여해서 실생활에 응용할 수 있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요새 사람들은 못도 못 박고 집 보수도 못하고. 여기서 우리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어떤 스킬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생활에서 필요한 기술인 것 같아요. 그것만 해도 엄청난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역할을 해줄 수 있어요. 우리 친구 셋이서 어떤 주제나 테마를 정해서 한다면가 아니면 여러 가지를 주고 각자가 해도 다 할 수는 있어요. 못하는 건 아니에요. 안했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던져놓고서 하면은 다 해요. 다 할 수 있으니까 하다가 틀려도 걱정 안 해도 돼. 그럼 못해가 아니라 다시 하거나 보완하면 되거든. 그러면 솜씨가 좀 더 높아지게 되는 거야. 기술이라는 것은 단 시간에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습득을 해가면서 단계가 올라가기 때문에 어려운 거는 없어요. 도구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면. 그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봉 그런 건 해줄 수 있어. 오픈데이처럼 필요한 사람들에게 해 줄 수는 있지. 그 사람들 그 당시에는 절실하잖아. 그런 사람한테는 해 줄 수 있는데 수업처럼 하고 이런 건 정석이 아니어서 어렵지 않나.

덕우 자주 얘기하다 보면 그게 평상시에 안하던 거여서 하고 싶고 이렇게 해서 참여하고 싶고 그래. 관심이 붙는 것 같아. 누가한다 하면은

명섭 모르는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은 좋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고, 그 사람의 장점도 있고 우리가 갖는 장점도 있으니까 여기 오면 공유가 되죠. 남들이 하는 것을 보고 응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이 좋아요. 항상 배려해주시니까 감사해요. 편해서 좋고 지역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것도 좋고 친구들을 만나 얘기해서 좋아요.

다현 선생님들이 앞으로도 재밌게 작업하시고 다양하게 참여도 해주시면 좋겠어요. 한 10년 동안 여기서 활동하셔서 선생님들이 계시는 것만으로도 되게 든든한 공방 있잖아요. 그렇게 지켜주시는 활동을 하시길 바랍니다.

주봉 20년은 하려고 했는데 왜 10년만...(웃음)

정다솜

여, 30대
직장인
'죽사발' 활동모임 개설

“저는 그냥 능력 있는 할머니가 되고 싶어요. 그러려면 많은 걸 배워야 할 것 같아요. 그냥 나이가 들었을 때 내가 스스로 만든 게 집에 있으면 좋겠고, 그걸 만들 수 있는 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육각눈 소풍 바구니 대나무, 등나무 껍질, 330×150×200mm

정다솜 무언가 배우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었는데 수원으로 이사 오고 나서 한참 우드카빙에 꽂혀있었어요. 아마, 다이소에서 나무손가락을 사오면서 시작되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있는 나무손가락들이 너무 예뻐서 손가락을 깎거나 조리도구 만드는 수업을 알아보았어요. 다른 곳은 블랭크라고 해서 이미 오려진 것을 깎기만 하고, 뭔가 도구를 만들긴 하는데 그 목재조차도 다듬어진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뭔가 버려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길공방 선생님들 수업에서는 생목으로 한다는 소리를 듣고 수업을 신청하게 되었어요. 안 그래도 저는 길가에 떨어진 나뭇가지 주어 놓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서 거북이공방을 알게 되었어요. 우선, 그 첫 수업이 너무 좋았어요. 처음 과제가 나무 해오기였잖아요. 전 그게 너무 신선했어요. 이 도시에서 나무를 해온다는 것이. 실제로 주변을 돌아보니 갖 가지치기 된 나무들, 버려진 나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목재상 앞에만 가도 안 쓰는 것들이 진짜 많아요. 그렇게 ‘버려진 것들이 많구나’라는 인식을 하며 수업을 쪽 들었어요. 그리고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대나무수업이 딱 하나 있는 거예요. 이걸 뭐지 하고 찻잔받침하고 대나무바구니 수업을 신청을 했어요. 첫 찻잔받침 수업 때 한창균 선생님한테 보통 일반 도시사람들에게는 없는 모습들이 보였는데, 예를 들어 무언가 하나를 순수하게 좋아 하는 마음들? 그런 게 보여서 너무 좋았어요. 사실, 그냥 다른 분이 대나무수업을 했다면 이렇게 오래 들었을까 싶기도 해요.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나 하하 (웃음) 결국에는 사람인 것 같아요. 어떤 수업인지 내용보다는, 길공방 선생님도 나무를 대하는 태도가 너무 좋으시고 한창균 선생님도 대나무를 사랑하는 게 보이니까 그런 사람들의 태도에 저는 빠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시작하게 되었어요.

정다현 나무 깎는 것부터 시작해서 대나무로 까지 작업하는 것에 있어서 일맥상통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일상에서의 필요한 소품들을 관심 가지고 만들려고 하는 것들이요.

다솜 수업을 듣고 점점 시각이 그렇게 물들어간 것 같아요. 그전에는 다이소가서 천원주고 플라스틱바구니 사고, 뭔가 담을 수 있으니까 그것으로 끝이잖아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한창균 선생님 공방에 갔는데 자연소재가 집에 있으니까 집안 분위기도 달라지고 바라보는 것들이 자연친화적이어서인지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걸 그 공방에 가서 알았던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바구니 만들고 일회성으로 끝날 수 있었던 것들을 실제로 그곳에 가서 집안에 자연물이 있는걸 보면서 스스로 변화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다현 일상에서 작업량은 어느 정도 되세요?

다솜 대나무는 이때까지 쪼개는 작업을 했었는데, 도구가 없어서(두께틀, 조름칼) 하다가 사기가 저하되기도 했어요. 그래도 깎기는 이후에 끌도 사고 버려진 나무를 모아두기도 했어요. 이게 또 오래하면 손이 아프잖아요. 하루에 조금 조금씩, 아주 천천히 하고 있어요. 혼자서는 이곳에서 하는 것만큼 두 시간 내리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십분 할 때도 있고 안할 때도 있고 그래요. 그래도 항상 냉장고에는 나무가 들어있어요.

다현 선생님과 자주 얘기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귀찮고 싶다는 마음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공방에서 하는 작업들이 나중에 원하는 라이프스타일을 위한 준비라고 보면 좋을까요? 아니면 어떤 과정이라고 생각하세요?

다솜 딱히 귀찮이 아니라도, 저는 그냥 능력 있는 할머니가 되고 싶어요. 그러려면 많은 걸 배워야 할 것 같아요. 보통 할머니들은 바느질해서 뭘 만드는 걸 할 줄 알고, 뜨개질을 한다거나, 음식이라든가 그런 손으로 하는 것에 대해 의외로 기술이 많으시잖아요. 엄마도 보면 레이스도 뜨고 그런데 저는 그런 게 없어서 할머니나 엄마가 했던 것처럼 똑똑똑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하는 것 같아요. 사실, 귀찮보다도. 어디에서 지내건, 그냥 나이가 들었을 때 내가 스스로 만든 게 집에 있으면 좋겠고 그걸 만들 수 있는 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현 그런데 있어서 한창균 선생님은 선생님께 어떤 의미인가요?

다솜 신기한 분? 항상 뵈 때마다 새로운 시각을 좀 주시는 느낌이에요. 보통 회사나 친구들한테 볼 수 없는 그런 성향이 보이세요. 말씀하시는 것도 감동보다도 사람을 ‘띠용’ 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나무 소리를 들어보세요, 대나무가 쪼개지는 소리 들어보세요, 빛깔을 보세요’ 이렇게 하나하나 자기가 느끼는 것을 저희도 같이 공감하게끔 가이드를 해주시는 점이에요. 저는 그렇게 하려면 꼭 그렇게 해보고 느껴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런 습관들도 좀 드는 것 같고 정말 신선하신 분이예요.

다현 거북이공방은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교차되는 관계들, 강사 선생님-수강생-담당자가 작업자들로써 서로의 태도라던가 서로가 삶을 바라보는 관점들을 계속 영향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저희가 준비한 것 보다 그런 점들을 더 풍성하게 체득하시고 채우셔서 어떤 마음이신지 궁금했어요.

다솜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다른 것 보다 그 사람이 좋고 그러면 약간 쿵짝지 씩씩지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다현 다른 동료 작업자와도 그런 게 있나요?

다솜 희영 선생님이요. 저번에 공예트렌드페어에 같이 갔는데 다솜은 ‘어떤 게 좋아?’ 라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저요?’ 그 전까지 저는 미적취향에 대해 생각해 본적이 없었거든요. 왜냐면 그냥 회사나 다니고 일이나 하고 맨날 서류보고 그러는데 이런 걸 물어봐주는 사람도 없었고 내가 스스로 파악할 계기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떤 게 좋아?’ 라고 묻는데 말을 선택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 마음에 들고 예쁜 거요’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어떤 게 좋으신데요?’ 라고 물으니 ‘난 재밌는 거’ 이러시는 거예요. 예전부터 희영 선생님은 대나무책이나 무언가를 볼 때 항상 깔끔하고 이런 것 보다 창의적인 것을 좋아하셨어요. 그게 연륜인가 싶기도 한 게 요즘에 저도 보면 너무 다 같으니까 지루한 감이 있는 거예요. 아 진짜 나이가 들면 재밌는 걸 찾게 되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 엄마랑도 이런 건 얘기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희영 선생님이 되게 신선해요. 엄청.

다현 좋은 친구를 만났네요.

다솜 희영 선생님은 보고 싶어요. 맨날 같이 놀았으면 좋겠어요.

다현 선생님한테 여쭙보고 싶었어요. 대나무활동이 이제 갓 시작하기도 했고 아직 기술이 쌓여진 것도 아닌데 항상 활동 할 때마다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함께 하게 하는 동력이 뭘까 궁금했어요.

다솜 사람, 결국 사람 같아요. 왜냐면 물리적으로 거리가 너무 멀고 그러다 보니 만날 기회를 만드는 것 외에는 접점이 없어요. 카톡, 전화도 한계가 있고. 사실 1년 동안 생전 연락안하다가 한번 보는 게 더 나은 것처럼 시간되면 그냥 가는 거고 그런 거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서 계속 가는 것도 있어요.

다현 선생님은 앞으로도 대나무 작업 계속 하실 거예요?

다솜 네, 하고 싶어요. 올해는 제발 활동모임이 잘 굴러갔으면 좋겠어요. 작년에는 두 명이나 순창을 가서 활동모임 할 사람들이 없었죠. 그런데 지금 보면 오히려 잘 된 건지도 모르겠어요. 연결지점이 생긴 것 같아요. 두 달에 한번이라도 순창에 내려가서 다른 작업자들과 교류하고 오자, 대나무를 사러 간 김에 뵙고 온다든가 두 달에 한번 혹은 분기별로 한 번씩 돌아가면서 가는 게 어떨까 했더니 매주 가는 것도 아니고 다들 하루 정도는 괜찮다고 하시더라구요. 가서 뭐 어떤 식으로 교류가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요.

다현 선생님이 이런 것에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건 좋은데, 너무 부담스럽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솜 아니에요. 이렇게 함께 해야지 내 작업을 할 수 있으니까요. 모임원들이 있으니까 나도 강제로 뭔가를 하게 돼요. 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웃음) 저도 그래서 두 달에 세 번 해도 되고 격주로 해도 된다 했는데, 지금 모임원분들이 매주 하자고 하세요. 사실 저는 조금 천천히 해도 좋을 것 같은데 당분간은 매주하자고 하셔서 좀 놀랐어요.

다현 선생님의 앞으로의 활동이 궁금하네요. 일 년 뒤 또 인터뷰해도 좋을 것 같아요.

한창균

남, 50대
죽공예 작업자
'대나무배우기' 강좌 진행 3년차

“호모바스켓쿠스. 기술자가 나오고, 분업화되기 전에는 자기 것은 다 자기가 만들어 썼었잖아요. 현대에 들어 깊이 잠재 될 수밖에 없었던 원시적 본능이 다시 살아나면서 대나무를 통해 그걸 확인하고 기뻐하는 거죠.”



한창균 거북이공방의 첫 수업은 사실 기억도 안나요. 하하. 대나무공예는 특징이 다른 분야랑 다르게 가공된 재료를 어디서 구입할 수가 없어요. 목공방도 판재, 각재 나무를 사서 작업을 시작하잖아요. 근데 죽공예는 그럴 수가 없으니까 그게 큰 차이죠. 그러다보니까 원데이 클래스처럼 제가 재료를 준비해서 수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실 저도 그렇게 애착이 없고, 수강생분들 만족도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나요. 자기가 대를 쪼개서 만드는 경우하고 제가 준비하는 재료로 만들기 만하는 경우하고 만족도가 굉장히 다르지요. 그래서 기억이 안 날거예요. 그때도 만약 대나무를 쪼개서 만드는 과정의 수업이었다면 저도 훨씬 재미를 느끼고 사람들이랑 더 친해졌을 테고, 계속하시는 분도 그중에 계셨을 거예요. 다른 분야는 대부분 가공된 재료를 구입해서 만들기만 하는 거라, 여러 가지 만들기 작업들을 경험해 보셨던 분들이 대나무공예에서 원재료 가공부터 경험을 해보시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구요. 거북이공방에서 수업은 그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정다현 선생님이 계시는 곡성에서 수원이라는 곳이 거리가 멀잖아요. 선생님이 이렇게 먼 곳까지 와서 수업을 해보고 여기서 ‘사람을 만나야겠다’라고 결정하시게 된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창균 있었죠. 저는 한동안은 나무하고만 지냈어요. 대나무로 시작해서, 한 3년 넘게는 이 세상은 안보고 계속 대나무만 쪼개면서 대나무 속에 들어가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한순간에 세상이랑 소통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수업을 시작했구요. 그래서 지역 주변인 담양, 곡성에서 활동하다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도 소개시켜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침 우리가 만났던 거죠. ‘대나무도 한번 제대로 못 본 분들이 계시는 지역에 가서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다현 제가 저희 실장님과 댁에 찾아되었을 때는 산에 살고 계시 때잖아요. 그 숲 속에 작은 작업장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작은 곳에서 대나무를 하시는데, 집과 작업장이 함께 있고 선생님의 작품들이 집안 곳곳에서 쓰이고 있는 것이 참 많이 와 닿았어요. 선생님과 ‘이런 작업들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상상이 기분 좋았죠. 이야기를 들어보니, 시기가 딱 잘 맞아 떨어졌네요. 선생님 대나무 속에 사셨을 때 만났으면 안 나오셨을 텐데, 다행이에요.

창균 대나무 속의 세계는 마이크로월드죠. 미세한 세계. 그러다가 딱 세상으로 돌아서서 대나무를 통해서 이 세상을 만나는데 계속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어요. 대나무는 정말 신비하고 무한한 매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그런 무한한 기쁨을 주기도 하고요. 예전에는 누구나 대나무 같은 재료들로 만든 생활용품들을 썼었는데 70년대부터 플라스틱이 나오면서 싹 사라졌었죠. 그런데 이제는 석유화 문명이 한계에 이르렀고 그런 인식들도 많이 공감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대나무가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럴 필요성도 있고요. 사람은 본래 원시적인 본능 같은 것이 있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요새는 확신이 점점 들어요. 요새 사람은 경제적 동물이라고 해서 호모이코노미쿠스라고도 하는데, 제 생각에 원래가 사람은 그릇을 만드는 존재인 것 같아요. 바뀌어 말하면 바구니

를 만드는 DNA가 있다고 해야 할까요. 계속해서 원시적인 경험을 원하는 것 같아요. 제가 대나무 작업을 함께 할수록 깊은 만족을 느끼니까. 하하 계속 확인하고 있어요. 정말로 호모... 호모 용어를 그럼 만들어야겠다. 호모바스켓쿠스? 뭐 이런 식으로, 충분히 그런 것 같아요. 기술자가 나오고 분업화되기 전에는 자기 것은 다 자기가 만들어 썼었잖아요. 물론 바구니도요. 세계- 지구 도처에서 다 만들어 썼었던 것 같아요. 그런 원시적인 본능이, 현대에 들어 깊이 잠재될 수밖에 없었던 본능이 다시 살아나면서 대나무를 통해 그걸 확인하고 기뻐하는 거죠.

다현 선생님은 대나무 작업도 좋아하시고 이렇게 사람들과 기술을 나누는 것도 너무 좋아하시는데 굳이 나누자면 어떤 것에 더 큰 기쁨을 느끼시는지, 그 두 가지가 선생님께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궁금합니다.

창균 둘 다 똑같은 기쁨, 똑같은 느낌이에요. 사람들이랑 이렇게 공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기쁨이에요. 제가 순창에서 활동하시는 분들께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 분들은 지금 만드는 재미에 푹 빠져계세요. 그런데 제가 계속 말씀 드리는 것은 바구니를 만들면서 만족하고 누군가가 그것을 사가는 기쁨도 크지만, 입장을 바꿔서 누군가가 잘 만든 바구니를 사는 것도 기쁨이다. 그리고 나아가 바구니를 직접 만드는 기쁨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 다른 사람들이 작업하는 것을 도와주면서 받는 기쁨이, 만드는 기쁨 못지않게 크다는 이야기를 하죠. 앞으로는 그런 것도 생각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다예요. 제가 혼자 구상하며 만들고 싶은 것들이 자꾸 만든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어느 한순간에 필 받거나 확 몰입해서 생기거든요. 그 두 가지가 양상은 다르지만 저에게는 거의 같은 비중인 것 같아요. 원가를 만들어 내고 싶다, 그리고 대나무로 원가를 만들고 싶은 기쁨을 나누고 싶다. 똑같은 것 같아요.

다현 그게 거북이공방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기도 하고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바이기도 해요. 활동모임을 하시는 분들의 미션 중에 하나가 내가 배운 기술을 나누는 워크숍을 필수적으로 하게 되어있어요. 이런 과정이 힘든 분들이 있으신가하면 너무 즐겁게 나눠주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창균 정말 즐거워요. 수업을 많이 하다보니까 느껴지거든요. 경우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수강생분들이 처음에는 좀 살피는 눈치예요. 저사람 무얼 얼마나 알고 저러고 있을까, 재밌는 걸 전달해주려나 라는 눈빛으로 좀 시뮬지 않게 쳐다봐요. 그러다 슬슬 이야기를 풀고 전혀 기대하지 못하고 예상치 못했던 이야기를 나누면 자세부터 달라져요. 그러면서 푹 빠져드는 것이 느껴져요. 그러면 저는 신이 나죠. 제가 얼마나 대나무의 매력, 공예의 매력을 깊이 느끼고 있는지, 그 안에서 나의 작업에 대해 느끼는 큰 기쁨이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한순간 한순간이 신비하고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다현 선생님이 말씀 하시는 것을 수강생 분들도 느끼고 계신 것 같아요. 수강생 중 한분이 인스타에 글을 올리신 걸 보고 인상 깊었던 게, 대나무를 배우러 공방에 오셔서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했는데 작업하다 손을 다쳐서 그날은 아예 진도를 따라가지 못

했다고 해요. 선생님이 그냥 쉬었다 해라, 지금은 칼을 잡지 말라고 했는데, 본인도 모르게 조금해져서 '선생님 제가 지금 쉬면 진도를 따라갈 수 있을까요'라고 물어봤는데 선생님이 '늦게 출발한 거북이가 끝까지 거기에 도달하는 것은 진리니까 너무 마음 조금하게 드시지 마시고 지금은 편히 손을 쉬셔라'라고 하신 말을 들으시고 '아 대나무 작업을 이 선생님과 끝까지 해낼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이 드셨대요. 이 글을 보고 단순히 대나무기술 뿐만 아니라 선생님의 그런 태도라던가 임하시는 것들을 수강생들이 많이 담고, 느끼고 충만하게 시간을 보내고 가시는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한참을 다시 그 글을 읽었어요. 선생님은 저희 보물이시네요.

창균 순창 모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수업을 마치고 동아리를 했고 그때는 지지부진했어요. 맥이 끊길 듯 말듯 그러면서 한 2년 지났어요. 대나무를 비유해서 말하자면, 대나무가 처음에 죽순이 딱 나면 처음에 가지가 안 달려요. 어느 정도 쪽 줄기를 뺐다가 대숲이 처한 환경에서 햇빛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그 고도에서 이 대나무가 가지를 뺐거든요. 이런데서 가지 뺐어봐야 여기 이파리 달아봐야 햇빛을 못 받는데 이런 데에서는 가지를 안 내요. 어느 정도 되면 가지를 내서 이파리를 달고 햇볕을 받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동안은 줄기를 뺐어 가는 그런 시간이었고 올 1월부터 가지가 막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거의 자립했어요. 순창은, 제가 없어도 잘 굴러가요.

다현 저도 순창 분들 보면서 아, 우리선생님들도 이렇게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분들 처음 제가 실장님이라 선생님 댁에 갔을 때, 다른 센터에서 진짜로 쪼개기 겨우 하시고 그냥 옆으로 엮는 거 하셨던 분들이신데 이제 전시도 열고, 교육도 하시는 걸 쪽 봐오니까 선생님께서 초반에 쏟아주시는 열정들로 성장하셔서 지금 그렇게 활동하신다는 게 정말 멋지죠.

창균 정말 대견스러워요. 완전히 사춘기라고 해야 될까? 제 말 잘 안 들으세요. 이제. (웃음) 그리고 이제 알아서들 스테디도 하세요.

다현 진짜 같이 작업자가 되셨네요.

창균 네. 이제 동료. 그런 느낌이 들어요.

현민주

여, 20대
수원시평생학습관 연구원
거북이공방 담당 2년차

“그런 분들이 그냥 막연하게
좋다기보다 삶의 태도나 양식,
살아가는 방법들을 배우고 있어요.
꼭 그렇게 살 필요는 없지만 ‘이런
길도 있다’라는 걸 생각해요.”



현민주 그 전에는 학습관에서 공방이라는 곳에 대해서 생각도 없었어요. 어떤 일을 하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 궁금하기는 했었어요. 공방 업무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는 간단하게 도와드리러 특강에 오고했었는데, 특강을 들을 때 ‘너무 재밌다’라고 생각한 반면 ‘너무 어렵다’라는 생각도 같이 했어요. 특강에 오시는 분들을 보고 저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구나, 이런 데에도 재미를 느끼는구나 하고 신기하기는 했었죠. 그에 반해 업무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공방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 ‘그냥 그렇구나’ 하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 사람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어요. 저 사실 되게 생각 없이 지냈거든요. 하루하루의 일만 생각하고 지냈었어요. 학교 다니고 일할 때도 그렇고.

정다현 이전에는 공방에 비해서 비교적 단순한 업무들이었으니까요. 선생님이 학습관에서 다른 업무들에 대한 경험도 있었는데 업무적으로 거북이공방은 어땠어요?

민주 업무적으로는 되게 재밌고 하나하나 도구를 알아가는 것이라든가 사람들 만나는 것이 너무 즐거웠어요. 평소에 만나지 못했던 작업자 분들, 물론 공방 오시는 수강생 분들도 성향이라고 해야 할까요? 저에게는 생소하기도 새롭기도 했어요. 처음에 공방 오고부터는 일하는 게 너무 재밌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보면 너무 어려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재밌었다는 마음으로 눌러져 있었던 것 같아요. 장영환 선생님이 간단한 도구를 찾는 데도 제가 도구 이름을 모르고, 이름이랑 실물이 매치가 안 되니까 검색하고 찾아보고 했는데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품목도 많고 비슷하게 생겼는데도 어떻게 쓰이느냐, 생김새 하나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게 되게 어려웠죠.

다현 지금은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민주 네. 지금은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지금도 어렵긴 하는데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이걸 모른다는 것에 대해 조금 힘들었어요. 담당자인데 잘 모르는 것에 대해 부담감이 있고, 어떻게 보면 대화가 계속 끊기잖아요. 저에게 강사도 설명해야하고 수강생도 설명해야하고. 제가 도구를 이해하는 것과 작업하는 사람들이 도구를 이해하는 것이 달라요. 저는 모양새로 생각하는데 이분들은 쓰임으로 이해한다는 것. 무조건 외우는 것이 아니라요. 저도 쓰임을 생각하고 작업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쓰이는지, 어떤 사이즈가 필요한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다현 거북이공방이라는 공간이 배움의 플랫폼이잖아요. 강좌를 통해 수강생뿐 아니라 담당자도 때로는 작업자 때로는 수강생이 되곤 하는데, 지금처럼 알아가고 변화한 것이 학습의 방식이나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또한 거북이공방을 통해 3년 동안 참 많이 배웠다고 생각해요. 선생님이 거북이공방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했는지 궁금하네요.

민주 제가 저 스스로도 느끼는 게, 제가 생각이 없었는데 이제는 하게 되었어요. 어떤 것을 배우고 익히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것.

공방에서 계속 내가 배운 것이 나에게서 끊기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일상에서 뭔가로 사용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뭔가를 얻고 배웠을 때 나 혼자만 알고 있게 되지 않고 계속 누군가에게 알려주고 싶거든요. 그게 바뀌었어요. 그게 꼭 공방의 기술로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모든 면에 다 그래요. 신기한 게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잘 모르는 것에 대해 고민도 많고 했는데, 오픈데이 때 제가 자신감을 진짜 많이 얻었어요. 나보다도 기술을 모르는 분들이 오는데 그분들에게 안내해드리고 알려주면서 자신감을 얻었어요. 거기서 도움을 많이 얻었죠. 오픈데이가 우리에게 주는 미션이라고 해야 할까요. 내가 발휘할 수 있는 것? 내가 지금까지 공방수업을 들으면서 강사 선생님들이랑 이 안에 있으면서 얼마나 이해하고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예요. 오픈데이에 오신 분들이 ‘이건 어때요’, ‘이곳은 어디예요’ 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나중에는 좀 더 말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저도 그걸 느껴서 너무 신기했어요. 제가 그런 설명을 해주면서도 기분이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

다현 그런 순간들이 내가 거북이공방의 주도적인 작업자라고 느끼게 하는 순간이 아닐까 해요. 작업자의 태도를 가지는 것이 좋은 게, 주도적으로 무언가를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어내고 해결해내는 것이 작업자의 특성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일상에서는 세분화된 일상, 나누어진 일상, 소비에 국한되는 영역만을 살잖아요. 작업자로 포지셔닝 되었을 때 경험하는 과정들이 일상에 적용할 수 있는 삶의 태도라고 생각하는데, 어때요. 지금 스스로 작업자라고 생각이 드나요?

민주 네. 이제는 작업자라고 생각해요. 오픈데이를 생각하면, 공방에 있어서 목수나 작업자라고 오해를 많이 받기도해요. 나는 전문적인 목수는 아니지만 누구든 거북이공방에 오면 알려줄 수 있는 작업자라고 생각을 해요. 누구든 기술이 없이 와도, 내가 있을 때는 드릴을 사용하거나 톱질하는 것들을 알려줄 수 있으니까요. 전문적인 목수처럼 알려줄 수는 없지만 새로운 사람들이 공방에 와서 작업에 관심을 가지면 어떤 걸 알려주는 것도 작업자 역할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조금 더 들어가보면 그 뒤에는 활동모임 작업자들, 그 뒤에는 강사 선생님이 있겠죠. 그래서 저는 맨 앞에 있다고 생각해요.

다현 거북이공방에 모인 작업자들이, 비슷한 부분들도 있지만 출신부터 배운 것들, 직업, 경험한 것들의 배경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의사소통 하고 무언가를 같이 하는 경험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우리보다도 거북이공방에 더 적합한 사람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나무와 손작업을 좋아하는 이유로 합쳐지는 것처럼 강사들과 우리도 거북이공방을 만들어가는 것에 대한 구심점을 가지고 있어요. 서로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서로가 많이 배워간다고 생각해요. 설득하거나 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과정이 되게 필요한 거죠.

민주 만지고 작업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거나, 여기 공방에 계시는 분들과 얘기를 해보면 뭔가 잊고 있었던 것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때도 선생님과 이야기 나눈 것 중에, 내가 이렇게 손을 움직이고, 뭔가를 만지고 하다 보니까 ‘나 어렸을 때 이런 거 되게 좋아했는데 잊고 지냈네’, ‘내 주변에 누가 이런 걸 좋아했었지’ 이런 것들. 잊고 있던 것을 공방에서 많이 생각하게 하는 것 같아요. 만드는 것 뿐 아

니라 일상을 통틀어 내가 잊고 있었던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보고 있어요. 학습자들을 보면 자신의 일(직업)이 있고 또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잖아요. 그게 너무 많이 와닿고 느껴져요. 사실 이런 분들을 처음 봤어요. 내 일과 분리된, 내가 좋아하는 일을 진지하게 좋아하고 이야기 나누는 것을 보면서 공감이 간다기보다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나도 그런걸 찾아보고 싶어지고, 그런 삶이 약간 모토처럼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를 느낀 것 같아요. 왜냐면 직업도 다르고 나무를 좋아하는 이유도 다르고 그런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그냥 막연하게 좋다기보다 그런 것들을 배우는 것, 삶의 태도나 양식, 살아가는 방법들을 배우고 있어요. 꼭 그렇게 살 필요는 없지만 '이런 길도 있다'라는 걸 생각해요. 예전에는 한 길만 보고 있었어요.

다현 한 길이 어떤 길이예요?

민주 그냥 일을 하고, 뭔가 마음이 그냥 급급한 것, 하루하루 사는 것이요. 저는 꿈이 없었거든요. 꿈이라는 게 내가 '그때 그 때 좋아하는 거 하면 그게 꿈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게 없었어요. 항상 많이 보고 많이 배워야 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걸 찾고 싶어요. 지금은 하고 싶은 것, 좋아하는 것이 너무 많아졌어요. 지금은 되게 좋아요. 선택만 하면 되는 게 즐거워요. 보기는 많아졌고, 이제는 선택만하면 되는 거, 길이 많이 열렸어요.

다현 선생님이 평소에 친구들의 일상과 지금의 본인의 일상이 다르다고 얘기하는데,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친구들의 일상이 요즘 청년들을 대변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가 제일 다른가요?

민주 너무 똑같은 사이클이요. 제가 그렇게 지내왔거든요. 그래서 알아요. 스트레스는 어디서든 받잖아요. 학교, 직장 어떤 관계들, 급여 같은 것들, 취업이 안되는 것 이런 것들을 풀 데가 없는 것 같아요. 푸는 방식이 너무 단조롭다는 것이 답답해요. 카페에 가서 차를 마시는 것. 친구들과 대화하다보면 서로가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면 재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옆에도 힘드니까 서로의 힘듦을 확인하고 거기에 위로 받는 것 같아요. 그게 끝이에요. 이야기를 나눌 때는 풀리는 줄 알았는데, 집에 돌아와서 보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죠. '다른 사람도 다 힘들구나'에 대한 안심 정도예요. 공방에 와서 활동이나, 작업이나, 아니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 다른 취미를 만들고 다른 기회를 만들면서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 굉장히 싫이라고 느껴지거든요. 내가 피로감을 느끼는 일상이랑 분리된다는 게 느껴져서 스트레스 받는 친구들이 이런 경험을 하면 굳이 공방에 와서 나무를 안 깎아도 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나만의 기준을 알면 무얼 하더라도 그것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게 되는 방법을 알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친구들에게 이런 얘기들을 해도 되게 어려워요. 의외로 높은 벽이 있어요. 일단 오고, 와서 앉아만 있다가 가면 되는데도요.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 주제가 단조롭다는 한계에 대해서도 아쉽죠. 너무나 많은 재밌는 일이 충분히 있는데, 무언가를 해소하고 즐기는 게 카페나 술집의 공간에 한정되는 것이 안타까워요.

다현 일상과 일을 양립 할 때, 직원이기는 하지만 직원이자 작업자로서 거북이공방에서 내가 해내고 싶은 것 또한 해보고 싶은 것이 있을까요?

민주 작년부터 사실은 생각을 계속 했어요. 한해를 지내면 당연히 내년을 생각하게 되요. 우리가 거북이공방에서 할 일들에 대화를 하다보면, '여기까지' 라는 것이 정해져 있지 않고 늘 그 다음을 생각하니까요. 거북이친구들 인터뷰를 하면서 스스로 고민도 많이 했어요. 개인적으로는 공방에 왔을 때 사랑방 같은 곳이라고 느꼈으면 좋겠어요. 강사나 담당자는 늘 시민들과 함께 있겠지만 최대한 뒤로 빠지고 시민들이 직접 꾸리고 활동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고민 중이에요. 내년에는 작업자들이 전면에 나서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좀 더 해보고 싶은 욕심이 커요. 어떻게 보면 강좌는 안정적이고, 이제는 학습자들이 주도적으로 워크숍을 여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에 대해 고민하고 있어요.

다현 그게 선생님의 일상에서, 삶에 있어서도 의미가 있나요?

민주 제 이번 해의 목표는 제대로 노는 것이예요. 제대로 노는 것 중의 하나가 거북이공방의 일들이예요. 재밌게 하고 싶어요. 되게 신기한 것이 제가 논다는 것에 대해 생각할 때, 공방이 빠지지 않아요. 저는 여기에서도 재밌게 놀 수 있어요. 제가 일상에서 해보고 싶었던 프로젝트라든지, 자유로운, 정해지지 않은 활동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시간을 좀 더 써야 할 것 같은데, 그게 싫거나 괴롭지 않아요. 거북이공방은 나의 놀이이자 일터예요.

문화로 놀이짱

김정석
오아름

문화로놀이짱 작업자
‘2017 공간더하기상상 프로젝트’ 가이드

“정해져 있지 않은걸 수행할 때, 주어진 선택지가 너무 많을 때 오는 혼란. 그걸 넘어서지 못하고 ‘의지하고 싶다’, ‘누가 정해줬음 좋겠다’ 그럴 때 되게 불안하거든요. 그런 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불확실한 것들도 담담하게 넘어서면서 프로젝트를 하는 과정, 그런 게 오히려 좋았던 것 같아요.”



오아름 거북이공방은 소문 듣고 갔어요. 그곳에서 좋은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죠. 그 후로 마침 제안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해서 가게 되었죠. 그때 차를 멤버들 전부 4명에서 타고 갔어요. 사실 4명이나 갈 필요는 없었는데, 저희는 너무 졸보니까. 지역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워크숍을 잘 안 해봤거든요. 저희가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하는 데에 전문화된 조직은 아니니까요. 사정을 모르니까 공방에 있는 모든 공구를 다 가져 갔어요. 콤프레서, 각도절단기, 타카 이런 거 다 준비해가지고 갔던 기억이 있어요. 가서 좀 민망했어요. 짐이 많았잖아요. 꺼내야 되는데 짐을 숨길까도 고민 했어요. 죽고 싶었어요. 거북이공방이 너무 잘되어 있어서. (웃음) 공방으로 쓰려고 설계된 공간은 아니어서 바닥도 미끄럽고 한데 배치가 좋다고 생각했어요. 하! 역시 그 짐을 빼지 말았어야 했어요. 저희가 폐자재를 이용하는 작업을 하잖아요. 그날 워크숍의 자재를 챙겨왔는데, 규격화된 자재를 꺼내서 딱 재료라고 꺼내야 되는데 쓰레기들이 막 나오니까 죽고 싶고 그랬죠.

정다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네요. 인상 깊은 워크숍이었어요. 워크숍 내용은 어떠셨어요? 수강생도 많았어요. 강사님들도 네 분이나 되고, 아주 든든했죠.

아름 너무 긴장되고, 더 죽고 싶었죠. 근데 재밌었어요.

다현 그렇게 첫 번째 원데이 워크숍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장기 프로젝트로 ‘공간더하기상상’을 해주셨어요. 디자인부터 제작까지를 활동모임 분들과 같이 했는데, 그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장기 프로젝트의 경험은 없다고 고민을 좀 하셨었죠. 그 프로젝트는 어떠셨는지 여쭙게요. 다른 교육프로그램을 하신 경험에 빚대어서, 그리고 그걸 놀이짱의 작업장이 아닌 거북이공방에서 했을 때의 느낌도요.

아름 프로젝트를 한지 벌써 일 년이 지났더라구요. 프로젝트에서 제가 흥미로웠던 건 참가자분들의 연령대가 제가 평소에 만날 수 없는 연령대였다는 것. 그리고 굉장한 초심자부터 목공경험이 있는 분들까지 아우르는 프로젝트였다는 거예요. 조금 아쉬웠던 것은 재활용 목재를 다룰 수 없는 물리적인 조건의 한계와 제한이죠. 같이 주우러 다닐 수 없어서 아쉬웠어요. 그래서 방점을 찍었던 건 쉽게 구할 수 있는 자재를 사용하자라는 것이었어요. 집근처의 목공소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저렴하고, 다루기 쉬운 자재를 수공구로 가공하고 다룰 수 있도록 하는 데 방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잘 쓰이고 있나 궁금하네요.

다현 그 텃밭상자는 식물이 되게 잘 자라서 잘 쓰이고 있고, 바퀴달린 평상은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잘 쓰고, 또 저희가 물건 옮길 때 그거 없으면 못 옮겨요. 축제 때 엄청 잘 썼어요. 왜냐면 다른 수레에는 안 실리는 물건이 거기에는 실렸어요. 평상들도 이제 아래 모두 의숲으로 내려 갈 거예요.

아름 걱정했었어요. 같이 만들고 사용되는 걸 봤을 때 느끼는 감흥이 있는데, 방치되어 있으면 서로 비참하니까요.

다현 프로젝트 진행과정이 어렵진 않으셨어요? 커리큘럼이 정해져 있거나 그러지는 않았잖아요.

아름 그런 걸 극복해 가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뭔가, 보통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정해져 있지 않은 걸 수행할 때 주어진 선택지가 너무 많을 때 오는 혼란. 그걸 넘어서지 못하고 '의지하고 싶다', 그런 거. '누가 정해줬음 좋겠다' 그럴 때 되게 불안하거든요. 모르는 낯선 사람과 할 때는 더 그런 부담감이 있는 것 같아요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생각까지 들곤 해요. 근데 프로젝트 참가자 분들이 굉장히 너그러우셨어요.

김정석 많이 이해해주셨죠.

아름 그게 다른 것 같아요. 최근에 10대들과 하던 정규수업이 끝이 났어요. 그 친구들도 되게 재밌거든요. 저희가 실수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다른 방법으로 하죠. 뭐.' 이렇게 저희를 위로하는 상황들? 그 친구들이 워낙에 과제가 많고 수행해야 하는 일들이 많아서인지 저희 수업에서는 늘어져 있고 노는 것처럼 하고 그랬어요. 저희는 사실 강사로서 뭐 준비된 것이 없으면 되게 불안하거든요. '오늘 뭐 해야 하나' 저희가 불안해해도 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많이 상쇄시켜 주는 경험을 했었죠. 거북이공방도 그랬어요. 처음에는 많이 불안했어요. 저희도 '뭔가 보여줘야 돼'라는 것 때문에 불안했죠. 또 프로젝트니깐 사람들이 같이 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 내야하고, 또 장기프로젝트니까 즉자적으로 결과물이 안 나오잖아요. 그럴 때 참가자분들이 싫증을 내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들을 했고 저 스스로도 많이 넘어서는 계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 했었어요. 자꾸 제가 '서비스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사람처럼 생각하면 오히려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참 어려워요.

정석 담당자 두 분이 칭찬을 많이 해 주셔가지고 좋았어요. 사실 저는 아름답다 더 소심하거든요. 뭔가 걱정이 되면 되게 조마조마하고 그럴 때 아름이 옆에서 '가만히 있어' '조용히 해' 이라고 그래요. 저 되게 호들갑 떨거든요. 티 많이 나고. 근데 두 분이 '어! 좋은데요' 하고 칭찬 해주시면 '아 그런가?' 하고 많이 용기를 냈어요.

다현 저희는 선생님들 부담스러우실까봐 자제했는데, 더 표현 할 수도 있었어요. 두 번 볼 거 한번 보고, 세 번 말할 거 한 번 말하고 그랬어요.

아름 다행이네요. (웃음) 되게 좋아했어요. 잘해주셔서. 먼 거리에서 오고 그럴 때 느끼는 부담감 있거든요. '잘해야 되는데' 이런 거.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켜야 하는데' 이런 거요. 초반에 파이팅 넘치다가도 참여자들이 반응이 없거나 그러면 의기소침해지거든요. 그런 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불확실한 것들도 담담하게 넘어서면서 프로젝트를 하는 과정, 그런 게 오히려 좋았던 것 같아요.

다현 저희도 프로젝트 할 때 마주하는 너무 다양한 경우의 수들과, 프로젝트에서는 담

당자들이 매개자의 역할로 들어가는데 선생님들이 지금 말씀해주시는 것들이 되게 어려워요. 저희가 의도하기는 했으나 그걸 모든 작업자 분들이 이해하거나 공감해주시지는 않아요. 이런 과정을 같이 해내는 것, 함께 시간을 경험해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선생님들과 함께 한 프로젝트가 너무 좋았어요. 진행되면서 분위기가 완화되어 가는 것을 느꼈어요. 첫날의 분위기와 긴장감은 저도 느꼈거든요. 어떤 프로젝트든 첫날은 참가자들의 저항이 되게 세요. 3주차까지는 불안한 기운들이 있죠.

아름 그렇게 되게 하는 게 뭘까 궁금해요.

다현 우리가 교육 받아온 패턴이 있잖아요. 첫 번째 시간에 제시해 주는 것들. 교재 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예 첫날에 설계 된 타임테이블을 쪽쪽 써달라고 하거나 그런 요청들이 많죠. 어렵지 않은 일인데 거북이공방에서는 일부러 하지 않는 이유가, 내 자신이 스스로 학습과정을 설계하고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프로젝트에서라도 기술자와 매개자와 참가자가 같은 몫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모두에게 어려운 미션이긴 한데, 물론 충돌과 마찰이 있긴 하지만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아름 그런 활동을 하다보면 말할 수 없는 어떤 감정에 휩싸일 때가 있어요. 뭔가 있는데 표현이 안 되는 것들 저희는 작업 난이도가 적당했던 것 같아요. 만일 작업 난이도가 높았다면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다행이 운이 좋았고 나중에는 되게 잘 하시더라구요. 정말. 참가자 분들이 스스로 '오늘은 이거죠' 이러면서 작업하시는 것들이 되게 재밌었어요. 좀 나이가 든 남성분, 경험이 있는 분들은 후반에는 분업을 하기 시작해요. 여기서 착착 자르면, 여기는 박으세요. 이렇게.

정석 귀여워요. 작업하다보면. 어떤 분들은 이런 작업 자체에 몰두하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걸 빨리해서 결과물을 짜잔 보여주고 싶으신 분들도 있고 그래요. 각자마다의 목표가 다른 것들이 재미 있어요.

다현 재밌는 것 중 또 하나는 시니어 분들이 학습관에 많이 오시는데 그분들은 제 2의 인생을 설계 할 때 본인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을 강사나 가이드로 맞이하는 시기가 왔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 기분 상해하거나 나이 많음의 위치를 고수하는 분이 있는 반면 새로운 태도를 만들어 가시는 분도 계시기도 해요. 거북이공방 프로젝트에서는 그런 시니어 분들과 비교적 젊은 작업자들이 동등한 작업자의 위치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어필하고 있어요. 나이와 성별을 떠나 우리는 동등하고, 어떨 때는 기술을 가진 사람이 우위인 거예요. 프로젝트를 할 때 이런 관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저도 확신 할 수 있었어요. 어떤 마찰이나 충돌이 두려워서 만나지 않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다양한 세대는 더 자주 맞닥뜨려야 하니까요.

아름 특이점으로 생각한 것이, 프로젝트 중에도 그런 기운이 있긴 했어요. 문화로놀이짱 작업장에는 가끔 대규모 인원으로 현장탐방 오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시니어를 포함해서요. 이렇게 둘러보고 늘 하시는 질문이 '어떻게 먹고 사냐, 이런 게 비즈니스 모델이 되느냐, 그래서 할만은 하신가' 이런 것들이었어요. 예전에는 그런 게 되게 불쾌했어요. 그런 질문 자체가요. 그런 것에 대해서 몇 년 동안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그 세대는 그게 궁금한 것이 당연하거 같은 거예요. 그걸 증명하는 것이 하나의 허들 같은, 그걸 넘어 섰을 때 그걸 완전히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했어요. 예전에는 절대 안 알려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 거북이공방도 처음 갔을 때도 비슷한 질문이 있었는데 그때는 기분 나쁘지 않았어요. 저도 변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질문이 노골적이지 않아서일 수도 있어요.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수익을 보장해주는 것과 인과관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힘들면 안 하겠죠. 아니면 힘들게 하겠죠. 그치만 지금은 '적당하니까 이 일을 합니다. 운이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거북이공방에서 프로젝트 첫 날에 이걸로 돈을 버냐고 물어보셨는데 볼래하지 않았어요. 그게 기억이 나요. 근데 그 세대가 산업화 세대니까 그게 당연히 궁금할 것 같아요. 처음 보는 직업이니까요. 생계가 그분들의 주된 관심사인 것은 이제 당연한 것 같아요.

다현 프로젝트 진행 하시면서 그런 대화도 많이 나누셨어요?

아름 가끔요. 저희 활동에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웃음) 처음에만 흥미로워하시고 오히려 굉장히 사소한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일상의 얘기들. 데크를 어디에 놓을지, 어떤 분이 또 계산 잘하셔서 이유를 여쭙보니 회계학과 나오셨다 이런 얘기들.

다현 기억력이 진짜 좋으시네요. 그때 프로젝트 함께 하셨던 분들 중 두 분에게 그 다음에 '평상 만들기 프로젝트'에서 선생님들과 같은 역할을 맡겨 드렸어요. 앞으로도 우리가 스스로 공간을 계속 만들어갈 건데, 선생님들이랑 했던 공간더하기상상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경험을 만들어 간 거예요. 그분들이 프로젝트의 가이드가 되시니까 의욕적으로 본인이 나서서 하시기도 했어요.

아름 일이 내 뜻대로 안 풀리면 초조하고 답답하니까요. 사실 가이드나 강사가 되어 누구에게 무엇을 시키는 게 되게 부담스러워요. 근데 그런 역할이 중요해요. 프로젝트 안에서 유경험자와 경험이 없는 분들 사이에서는 기계적으로 수평의 관계를 만들기보다는 유경험자가 선택지를 좁혀서 범위를 제시하는 것을 무경험자가 결정하게 해야 해요. 범위를 좁히는 과정이 수평적이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선택지가 없는 것은 너무 막막하거든요. 그럼 경험이 없는 분들은 정말 혼돈 이에요. 그럴 경우 무경험자들은 '내가 누가 되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기의 역할을 못 찾았을 때 느끼는 그런 감정들을 느끼거든요. (웃음)

다현 선생님들 프로젝트 한 번 더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름 그게 왔다갔다 먼 게 힘들어요.

다현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자립하려고 여러가지 시도하고 있어요. 기대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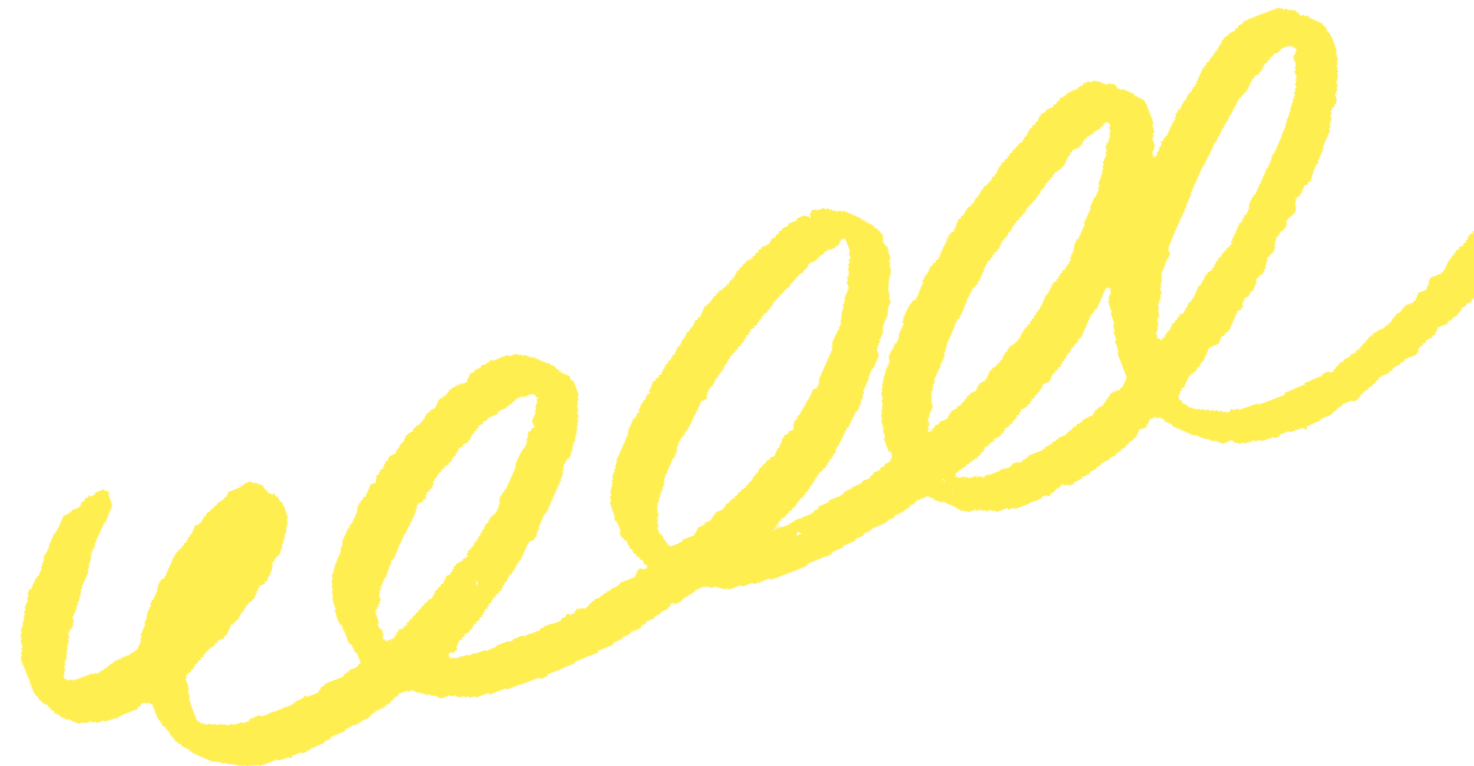
후가

용형준

임주현

우드카빙작업자
'나무와칼도끼' 강좌 진행 3년차

“이제 정보나 기술을 독점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대신에 똑같은 지식이나 정보를 조금 더 잘 소화할 수 있게 잘 편집해서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누군가로 인해 삶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저희도 그랬구요. 저희도 누군가에게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 작업자가 되고 싶어요.”



용형준 원래는 제가 수업을 할 계획이 전혀 없었어요. 처음에 전화가 두세 번 왔다고 해서 그럼 ‘얘기라도 들어보자’해서 만나보게 되었죠. 그 전에도 학교 쪽에서 연락을 받고 그랬는데 대부분 뭐라고 할까, 약간은 학교수업에 구색을 맞추기위한 느낌을 받아서 더이상 응하지는 않았습니니다. 거북이공방의 경우는 다현 선생님과 직접 통화를 했죠. 몇 가지를 얘기 해주셨는데,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뵙자고 했어요. 처음 만났는데 두 시간을 내리 대화했어요. 되게 더운 날이었는데, 꼼짝도 안하고 두 시간을 이야기 했더니 나중에는 땀이 막 나고 허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렇게 인터뷰하고 나서 수업을 해보기로 결정을 했어요. 수원시평생학습관 홈페이지, 거북이공방 블로그에 들어가서 활동내용과 커리큘럼을 봤는데 짜임새 있게, 잘 돌아가고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특강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보면 신경을 많이 쓴 느낌이 들었죠. 이곳의 스태프들이 ‘매우 성실하고 좋은 사람들이구나’ 생각했어요 인연이 또 이렇게 맺어졌네요.

정다현 저도 인상 깊었던 것이 첫 만남에서 거북이공방의 기조와 일맥상통하는 이야기들이랄까? 우리나라에는 아직 없는 혹은 사라진 문화를 만들어가는 곳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선생님과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어요. 거북이공방에서는 시민들에게 강사라는 사람을 소개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시민들이 이런 사람들의 삶을 간접적으로라도 경험했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었어요. 평생학습이라면 이렇게 해야 하는 게 아닐까? 이런 걸 그날 대화하면서 많이 느꼈죠. 장인문화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볼 수 있었죠. 우리나라의 경우 폐쇄적인 기술전수 방식들, 기술이나 정보를 알려주길 꺼리는 것들이 있죠. 그런 부분에 마찰이 없지 않아요. 이후에 공방에서 강좌를 진행하면서 선생님이 뭐든지 보여주시고 나눠주시는 것들이 있어서 덕분에 잘 배웠고 기준점을 삼기도 했었어요.

형준 저는 도제식 수업을 한국에서 받은 적은 없었어요. 대부분의 서양문화가 그렇듯이 현재 스웨덴에서도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곤 나이나 지위를 불문하고 서로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때 이미 상대방과 수평적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하더라고요. 물론 그렇다고 한국에서 선생님의 이름을 부르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문화의 차이니까요. 그리고 수업을 할 때 질문을 하면 적어도 ‘이 사람이 뭘 감추는 것 없이 모든 걸 알려준다.’라는 느낌을 종종 받곤 했습니다. 그렇다고 묻지도 않은 것을 쫓아다니며 알려주는 것은 없어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너무 많은 정보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몇 가지만으로 본질적인 것들을 못 볼 수 있으니까요. 도제교육은 가르치는 이가 가르침을 받는 이의 인내력이나 인성 그리고 성향 등을 좀 더 깊이 있게 파악하고 둘 사이의 깊은 유대관계가 형성됩니다. 또한 가르치는 이의 특별하고 고유한 기술이나 기능을 좀 더 깊이 있게 전수받을 수 있다는 것 역시 도제교육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반면 자칫 가르치는 이의 일방적이고 불합리한 기술 전달 방식이나 고압적인 태도 등은 종종 배우고자 하는 이의 의욕이나 열정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그 분야로의 진입장벽을 높이고 발전을 방해하는 요소가 됩니다. 지금은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정보와 지식이 인터넷상에 떠돌고 있고 원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든 쉽게 접근해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같은 지식이나 정보라도 사람들이 좀 더 잘 소화할 수 있도록 편집해 전해주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수업을 하다 보면 몇몇 수강자분들께서 이렇게 몇 만 원짜리 수업에 그런 고급 정보를 다 주면 어떻게 하나며 걱정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저 역시 쉽게 배운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누군가를 가르치기로 했다면 이걸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뉴스보고 티비본 걸 보는 족족 다 이해할 수는 없듯이, 제 수업이나 정보들도 그걸 잘 받아들이실 수 있는 분들이 더 잘 소화하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다현 도구를 대하는 태도, 작업자들의 자세,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가졌으면 하는 어떤 철학 같은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접근해서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해서도요. 우리는 소비에 길들여졌잖아요. 배움이건 되고 싶은 나의 모습이건간에 소비로 만들어버리니까요. 되고 싶은 작업자의 모습을 칼과 앞치마와 기계를 삼으로써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저도 그럴 때가 많고요. 그래도 우리는 성인이니까 작업 과정속의 진심어린 한마디 속에서 스스로 느낄 수 있게 기다리는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해요.

형준 그런 것들에 대해 같이 이야기 나누고 하면 좋죠.

다현 저희가 항상 공방 수업을 할 때 열 분 중에 두 분만 우리 취지를 공감하고 이해해 주셔도 좋다는 생각을 해요 잘못된 학습 방식이나 판단들로 더 이어나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서 그런 두 분을 위해서라도 수업을 하고 그런 두 분이 쌓이게 되면 그 분들이랑 우리는 더 좋은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분들이 생겨났을 때 꿈꾸시거나 같이 하고 싶으신 것이 있나요?

형준 교육하는 사람이 가장 우선해야 하는 ‘고기 잡는 법을 알려 주는 것’. 어느 정도까지 알려주면 그분들의 경험과 받은 교육들이 어우러져 특색 있게 발현되죠. 멤버가 모인다면 그분들이 연습하는 동안 생겼을 궁금증이나 확신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 알려주는 수업을 했으면 합니다. 많은 연습과 반복을 통해 만들어진 궁금증이나 막혔던 부분들이 선배 작업자의 말 한마디나 한 번의 시연을 통해 답을 얻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런 것 들을 깊이 있게 공유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나머지는 각자 알아서 하실 거예요. 결국 많은 반복과 연습을 통해 본인의 부족한 부분을 찾아내게 됩니다. 활동모임을 하다 보면 모임 하시는 분들끼리 작업에 있어 어느 순간 선의에 경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실력 향상도 되고요. 그때는 저보다도 훨씬 높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저희 스승님들 역시 그걸 원하실 거예요. 전통은 시대에 맞춰 계속 변하고 발전해야 합니다.

임주현 작업을 하다보면 자기의 스타일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다현 그런 과정을 교육적인 관점으로 본다면요? 선생님들이 그 과정에서 수강생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이요.

형준 예를 들어 손가락을 깎는 데 있어 기본적으로 음식물을 뜨기위한 기능적인 구조와 나무의 특성을 살린 작업방법등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제가 공유하는 부분은 어디까지나 목 부분을 만들 때, 그 부분

에 장식을 넣으면 보기에는 좋지만 구조나 기능상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생긴다면 제가 그런 부분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럼 깎으면서 생각을 하겠죠. 자연스럽게 쓰임을 생각하고 깎으면 그 모양이 나와요.

주현 공예는 쓸모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만들 때 모양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걸 쓸 때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야돼요. 손잡이는 이렇게, 여기는 오목하고, 엄지손가락이 편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재미있기도 하고 그런 걸 이끌어내는 시간이 꼭 필요해요.

형준 나무의 특성을 알아야만 거기에 맞는 디자인을 할 수 있어요. 그럼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기능적으로 계속 고민하면서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깎는 것이 중요해요. 자신이 하는 작업에 대한 질문이 있어야 해요. 그게 없으면 발전이 없어요.

다현 수업에서도 물건을 만들 때 쓰임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하나하나를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어요.

현민주 수업에서 같이 했었죠. 비어있는 유리병을 두고 내가 만일 잼ナイ프를 만들어서 뜯다고 했을 때, 어떤 걸 생각해볼지, 어떻게 만들면 좋을지 고민하는 시간을 주셨는데, 일상에서는 그런 도구의 사용, 쓰임에 대한 나만의 기준 같은 것들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이기도 해요.

형준 익숙하지 않은 방법이고 질문이에요. 하지만 그게 핵심이에요. 유리병을 보고 잼을 생각하고 잼을 뜨는 걸 생각해보고 하는 것, 어떤 분은 잼을 발라 먹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분도 계셨는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하하.

주현 스웨덴 학교에 입학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수업에서 반죽하는 주걱을 만들자 했는데 저는 밀가루 반죽을 손으로 하는 것만 생각했지 주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근데 거기는 반죽을 주걱으로 하더라고요. 그렇게 생활양식에 따라, 문화에 따라 필요한 물건의 모양이 다르기도 해요.

형준 그쵸. 문화가 다르니까요. 문화와 환경이 달라지는 데에서 도구의 재료나 모양도 달라지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주현 스웨덴은 목공과 가구 만들기에 적합한 산림자원이 풍부하고 거기에 실력 있는 대장장이들이 목공을 위한 다양한 도구들을 발전시켜 왔어요. 그 나라 환경에 맞게 발전을 한 거죠.

형준 유학 때 선생님 중 한분을 인터뷰 했었는데, 어떻게 목공예가가 되셨냐고 하니깐 '나무가 있었고 자기는 그냥 깎았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당연하잖아요. 짧지만 울림있는 말이죠.

다현 자기 삶에 밀착 된 작업들이요. 수업에서도 이런 얘기들을 나누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질문을 짧게 해도 좋은 얘기들을 다 해 주시네요. 본질적인 것들에 대해서, 칼이나 도끼를 쓰지 않아도 질문하고 사유하는 시간들이 거북이공방에서 많이 공유되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데서는 학습의 부분이라고 여기지 않아서 빼기도 하는 과정이죠.

주현 수업을 하는데 있어서도 다양하게 끌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린 베이킹 주걱의 경우에도 다 만든 다음에 그걸 테스트를 했어요. 밀가루랑 물이랑 반죽해서 다른 친구들이 만든 손가락을 다 써봤어요 마무리에 따라 어떤 건 너무 날카롭다, 어떤 것은 손가락 안을 너무 파내서 거기에 반죽이 다 들러붙는다, 이런 것들이요. 간단해요. 손가락 깎고 마지막 시간에 만든 손가락으로 같이 뭍 먹어 보는 것. 그런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형준 이제 그런 재미난 것들을 시도 해봐야죠. 수업 시간이 더 늘어났으면 했던 이유는 깎는 데에만 치중하지 말고 생각하고 공유할 수 있는 것들 때문이었어요. 이러한 시간이 늘면 좀 더 창의적이고 지밋는 수업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다현 배움에도 다양한 방식이 있죠. 경험하기 어려운 그런 방식을 거북이공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점차적으로 안정화되는 수업과정을 실험하고 개발하면 앞으로 만드는 것이 정말 더 재밌어질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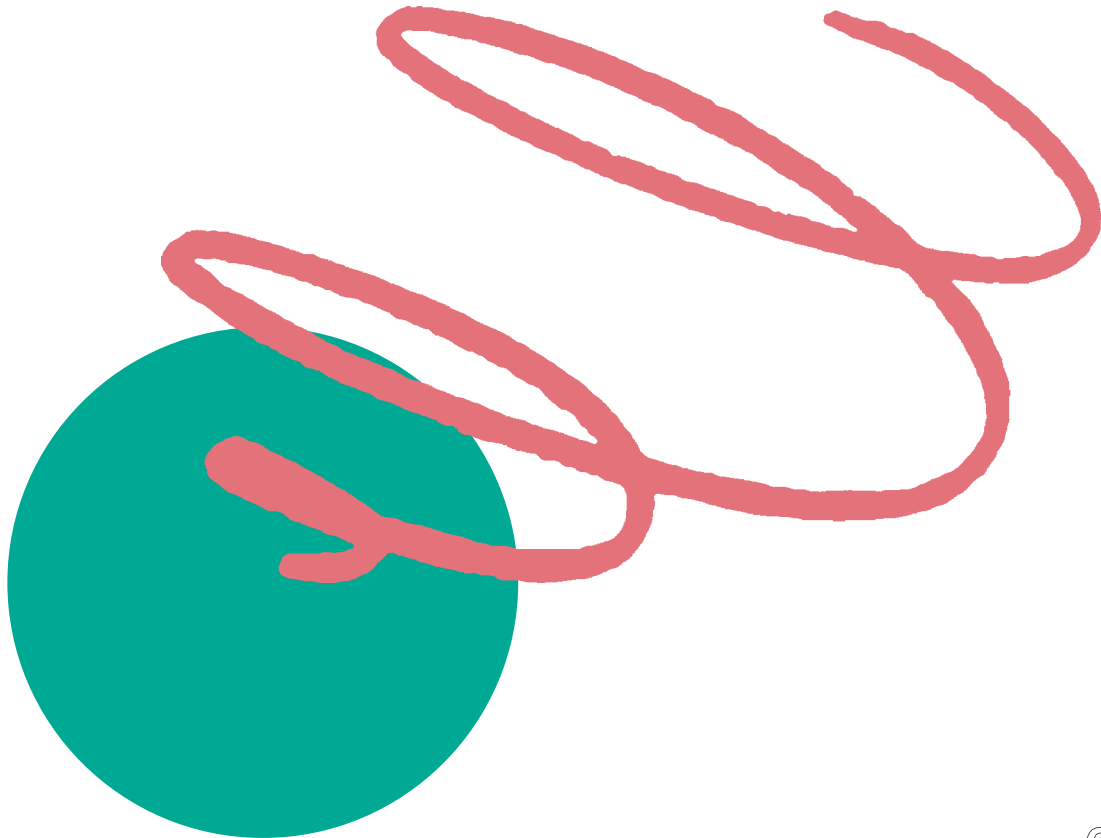
형준 그런 수업이 저희랑은 정말 잘 맞아요. 저희도 외부에서 제안이 들어오기도 하는데 종종 너무 형식과 실적에 맞춰진 느낌이 들더라고요. 물론 수업의 성격과 형식에 따라 다양한 수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그래도 핵심을 잃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현 많은 사람이 이런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고, 계속 반복해서 작업하고 고민하고 연구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하고 싶은 것들이 그분으로서 반증이 되는 거죠. 표출이 되는 거예요. 길을 제시했을 때 묵묵히 같이 해주시는 것. 그런 분들이 모양 잡고 질문을 하시는 것을 보면 참 꾸준히 작업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같이 작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참 뿌듯하고 감사하고 감동적이었죠. 이번에 같이 다녔던 수업이 저한테는 너무 좋았어요.

형준 누군가로 인해 삶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저희도 그랬구요. 저희도 누군가에게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작업자가 되고 싶어요.

곽도절단기

여, 30대 후반
수원시평생학습관 교육팀장
거북이공방 숨은 멤버 활동 2년차



나도 거북이친구가 되고 싶다

거북이공방 Pick&picture Party 참가기

거북이공방 파티입니다. 한 해 동안 만들었던 작품을 가져와 전시도 하고 사진도 찍는 날이었습니다. 따뜻한 차와 맛있는 음식들도 빠질 수 없었겠지요? 모두들 즐겁고 행복해 보입니다.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훈훈한 분위기속에서 웃음이 만발했습니다. 여기는 수원의 오래된 동네에 위치한 사진관입니다. 거북이공방 파티를 위해 장소를 선뜻 제공해 주셨습니다. 시민 작업자들은 가족과 친구들에게 작업 과정을 설명하며 으쓱으쓱했고 작품을 들고 모델처럼 포즈를 취하면서 함박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한켠에는 작은 나무 조각을 깎아 호루라기를 만드는 즉석 워크숍도 열렸습니다. 고사리 손, 높은 손, 능숙한 손, 서툰 손, 섬세한 손, 장난꾸러기 손들의 열연이 펼쳐졌습니다. 생각하는 손들의 향연은 아름다웠습니다. 비록 뽁뽁 뽁뽁 같은 소리가 나오긴 했지만요. 이날 파티에선 억지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연스러웠죠. 다들 제자리가 있었습니다. 가르치고 배우고, 주고받고, 얻고 나누고, 가면 오고, 무언가는 적었지만 다른 것은 많았습니다.

기획자로서 저는 언젠가 불후의 명작을 만들어 보고 싶다는 욕심이 있습니다. 이런 일을 계속 하다보면 테크닉이랄까요? 어떻게 하면 있어 보이고, 크게 보이고, 그럴 듯해 보이는지 알게 됩니다. 사람들이 어떤 포인트에서 좋아하는지에 대해서도요. 가성비를 고려하는 능력도 얻게 됩니다. 그렇게 기계에서 막 뽑아낸 신상처럼 매끈한 행사나 사업이 나오게 되죠. 테크닉은 해를 더할수록 점점 화려해집니다. 또 그런 것을 원하는 우리 사회의 분위기도 한 몫을 합니다. 걸만 화려하고 속은 비어 있는 빛 좋은 개살구 같은 것이지요. 옛지는 있겠지만 깊이나 울림이 부족해집니다. 감동이 없는 것이죠. 불후의 명작은 점점 멀어져 가고요. 기획자는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한편으로 거북이공방을 접하면서 저는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나하고는 꽤 다른 사람이란 걸 알게 되었습니다. 몸은 큰데 손발이 작아 자꾸만 넘어지는 그런 불균형이랄까요. 생각 속의 저는 자연을 사랑하고 자분에 비판적이며, 다양성을 존중하고, 작고 더딘 것들에 대한 인내와 사랑을 갖고 있는 꽤 멋진 사람이었습니다만 실제로는 거칠고 투박한 것, 시간이 걸리는 것, 참고 기다리는 것, 몸을 쓰는 것, 협동하는 것들을 낯설어하는 서툰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편리하고 깔끔한 완전한 것들을 바로바로 샅가 쓰지 않고 내버려두는 편이라는 것도 동시에 알게 되었고요. 또 일생 살면서 직접 재료를 구하고 손을 써서 무언가를 만들어 삶의 필요를 해결해 본적이 없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었어요. 한마디로 생산성 없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기획자이자 길들여진 소비자로서의 내가 거북이공방의 사업 책임자라니 혼란도 이런 혼란이 없었습니다. 자아는 분열되기 직전이었죠. 거북이공방은 동경은 하지만 가까이 갈 수 없는 미지의 세계 같았습니다. 그런데 별다른 생각 없이 덜렁덜렁 참여했던 이날의 거북이공방 파티에서 전 처음으로 조화를 느꼈습니다. 날 것 그대로가 펼쳐지는 생생함 속에서 각자가 다양하게 제 할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속에 동화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한 일은 당일 보다는 파티를 열기 위한 사전 작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두들 그 자리와 그 장소를 좋아하고 있더군요. 저도 이제 거북이공방에서 생산성 있는 작업자가 된 것 같아 기쁘고 뿌듯했습니다. 또 거북이공방이 꼭 전형화 된 하나의 모습일 리 없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사진관에서의 거북이공방도 꽤 좋았습니다. 거리에서도,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그 어디서나 거북이공방은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무지개 색깔을 내는 삶의 필요와 연결된 일상의 작업터로서 말이죠.

평생학습의 모양이 있다면 어떻게 묘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날의 거북이공방 파티와 비슷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생학습이 무엇 인지는 참 알기 어렵습니다. 학습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결과물로 여겨지는 것조차 과정일 뿐이죠. 그런 과정들 속에서 조금씩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성장은 변화로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이전과는 달라진 나와 우리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거북이공방은 목공 기술을 전수하는 곳도 아니고 목제품을 생산하는 곳도 아닙니다. 이곳은 생각하는 손들의 협동과 연대를 통해 성장하고 변화하는 곳입니다. 이날 파티에 참석한 시민 작업자들은 딱 꼬집어 말하긴 어렵지만 어딘가 변화한 자신과 동료의 모습을 보며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이날 참석한 사람들 모두는 그 에너지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 감정은 우리를 좀 더 단단하게 결속시켰을 것입니다.

이날 어린 딸과 함께 온 시민 작업자가 있었습니다. 딸과 엄마는 함께 작품을 들고 사진을 찍었죠. 참 보기 좋았습니다. 딸은 엄마의 새로운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엄마 역시도 딸에게 작업자로서는 처음 섰을 것입니다. 모녀가 아닌 작업자 대 작업자로서 엄마와 딸은 호루라기도 같이 만들었습니다. 거북이공방 파티는 끝났습니다만 추억은 남을 것입니다. 이날의 시간이 서로에게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딸이 좀 더 크면 목공을 하게 될까요? 그렇지 않더라도 기억할 것입니다. 삶이 곧 배움일 수 있고 그 과정을 경험하는 것은 즐거운 것이란 걸. 어쩌면 이날 불후의 명작 수십 편이 만들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각자가 만들어 낸, 만들어 갈 그런 작품들 말입니다.





정리

작업자, 우정, 그리고 물들이기

거북이공방에서는 첫 수업에서

- ① 공방에 대한 소개(철학과 비전)
- ② 공방사용규칙 안내
- ③ 안전교육을 하고(안전교육은 최대한 엄숙하게 진행한다), 수강생들이
- ④ 서약서에 서명한다. 수업이 끝나면 강사, 수강생, 담당자 할 것 없이 수업에 참여한
- ⑤ 모두가 함께 청소한다. 청소할 때 빗자루는 10개 이상 준비한다. 사실 빗자루는 3개면 충분하다.

우정의 정치학을 작동하는 가장 일차적인 요소는 타자를 긍정적으로 촉발하는 것이다. 즉 그것은 친구가 지닌 장점을 좀 더 밀어붙여주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가 지닌 단점을 넘어서게 비판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에게 없는 어떤 것, 그러나 그에게 필요한 무언가를 제공하는 것일 수도 있다. “스승이 될 수 없는 친구는 진정한 친구가 아니고, 친구가 될 수 없는 스승은 진정한 스승이 아니다”

교육주체 간 관계의 새로운 이름, 공동 작업자

거북이공방에서 학습자들은 서비스의 단순 수혜자가 아니다. 강사의 말을 잘 듣는 학생도 아니고, 공방을 같이 사용하고 운영하는 ‘공동 작업자’로서의 위상이 부여된다. 강사, 학습자, 담당자라는 명명 대신 ‘작업자’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기존 역할의 경계를 넘는 일들도 자연스럽게 일어나기 시작했다. 수강생이 강좌를 열어 강사를 초대하기도 하고, 강사 또한 다른 강사에게 조금 다른 기술, 다른 재료에 대해 배우기도 한다. 그러면서 학습의 장면은 학습관 안팎을 넘나들며 더욱 다채로워진다.

학습자	강사	담당자	
작업자			공동
때로는 교육 및 자문자	때로는 학습자	때로는 학습자/자문자	
공방 사용자 도구관리/기물제작 기술습득 및 전달	교육 및 자문자 도구구매·관리·유지/기물제작 기술 전달	매개자 도구구매·관리·유지 제작 프로그램 운영	정리, 청소, 운영규칙 논의 및 결정

이런 모습을 가능케 한 것은 공방을 관장하는 전문가, 즉 목공 기술자의 ‘부재’ 때문이었다. 공방이 처음 문을 열었을 때는 지도교수와 같은 전문가가 있었다. 그에게 공방의 전체적인 공간 배치는 물론 교육과정, 실제 교육에 이르는 모든 것을 기대는 구조였다. 어쩌다 그가 하차하게 되면서 공방은 일대 혼란에 빠졌는데, 그것이 오히려 전환점이 됐다. 한 명의 전문가를 다른 전문가로 대체하는 대신, 공방에서 배운 시민들이 공방을 운영하는 다른 비전을 택한 것이다. 재미있는 것은 이 선택이 우리가 전문가를 고용할 예산을 확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선택한 차선이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민들이 한두 번의 강좌 수강으로 ‘작업자’가 되기는 어렵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활동모임’이다. 제작활동 영역은 강좌가 끝나고 나면 배운 것을 써먹지 않고는 못 배길 만큼 욕구가 차오른다. 또한 제작활동은 혼자서 지속하기는 어렵고, 적어도 셋은 모여야 개인이 원하는 것을 만드는 데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모임이라는 형태는 아주 자연스러운 귀결이기도 하다. 그런 학습자의 욕구를 적절히 활용하면서 거북이공방 운영의 책임과 권한을 시민 스스로에게 돌려주고자 하는 결정체가 활동모임이다.

전문가 없음의 더 많은 가능성

공방에서는 강좌에서 바로 활동모임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라는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 프로젝트에서는 강좌와 달리 참가자가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만들지, 언제까지 만들지 등을 학습자 스스로 정해야 한다. 그래서 학습자들은 처음엔 저항하고 이탈하기도 한다. 그 과정에서 담당자는 때로는 매우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애초의 취지가 무색해지기 쉽기 때문이다. 그 단계를 겪고 나면 활동모임으로의 유입이 수월해진다.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정말 하고 싶은 욕구가 키워지기 때문이다.

인문학공동체가 여기저기서 꾸러지고 주목받았지만 거북이공방의 활동모임은 아직까지는 낯선 시도다. 구체적인 기술, 그것도 조금만 집중력을 잃으면 물리적으로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배우는 곳에서 ‘전문기술자가 가르치는’ 행위가 아닌 ‘스스로 만들어 해결하는’ 행위는 흔히 보기 어렵다. 인문학공동체에서 강사 없이 공부한다는 것이 스스로 독해하고 말해야 하는 두려움이라면, 공방에서 전문가 없는 학습은 ‘혼자 기획하고 만들어야’ 하는 두려움인데 이것은 살면서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것, 요구받지 않았던 것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두려움은 학습과정에서 발생하는 실패에 대한 것일 수도 있지만, 이러한 경험 그 자체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강사가 없는 활동모임에 대한 두려움은 인문학 학습자들보다 훨씬 두드러진다. 강좌에서 배운 것을 직접 해보려고 시도한다거나 그런 방법을 ‘익히는’ 데에는 인색하다. 대신 남에게 계속 의존해서 만들기를 완성한다거나, 지난 강좌에서 경험한 그 다음 단계의 기술을 배우려는 집착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공방의 목공 기술은 강좌만으로는 절대 익힐 수 있는 게 아니다. ‘전문가 없음’을 견디지 않고서는, 스스로 연습하는 시간을 거치지 않고서는 자신의 배움이 일어날 수 없는 곳이다. 강좌 이후 ‘뭔가 만들고 싶다는 욕구’와 ‘그러나 결코 스스로 하고 싶지도 않고, 스스로 해낼 수도 없을 거라는 자기 불신’ 사이의 긴장을 거쳐 활동모임이 탄생한다.

활동모임, 거북이공방 친구들

활동모임은 가이드도 담당자도 없는 가운데 오롯이 모임 구성원들끼리 도모하는 과정이다. 강좌와 프로젝트를 거쳐 학습자들 스스로의 힘으로 움직이는 활동모임이 비로소 구성된다. 개인에게 필요한 것을 만들기도 하고, 거북이공방이나 공적으로 소용되는 것을 만들기도 하면서 ‘만들기 기술’을 익혀나간다.

활동모임을 통해 학습자들은 공동작업자로서의 위상에 다가선다. 거북이공방 담당자들은 모임원 당신들이 공방을 관리해주지 않으면 공방은 관리될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공방일지를 작성하도록 독려한다. 활동모임의 구성원들은 공방 기물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비품이 모자라는지 일지에 적고, 한 명의 관리자이자 공동작업자로서 책임과 권한을 수행한다. 이런 일들은 과정 자체를 즐기기 위한 서로 간 배려이며, 작업자로서의 매너라는 생각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오픈데이는 공방을 열어놓고 누구든 와서 사용할 수 있는 날인데, 활동모임의 구성원들이 다른 모임원들을 만나기도 하고, 처음 오는 분들에게 기술을 알려주거나, 혹은 그들 중 좋은 기술을 가진 분들에게 배우기도 하는 날이다. 활동모임과, 여기서 분화된 몇 가지 장치들 속에서 학습자는 수동적인 학습자에서 작업자로, 선배작업자로, 가이드로 가파르게 성장해나가는 기회를 맞이한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 서로 좋아하면 두 사람 사이에 서로 물길이 튼다. 한쪽이 슬퍼지면 친구도 가슴이 메이고 기뻐서 출렁이면 그 물살은 밝게 빛나서 친구의 웃음소리가 강물의 끝에서도 들린다. ... 큰 강의 시작과 끝은 어차피 알 수 없는 일이지만 물길을 항상 맑게 고집하는 사람과 친하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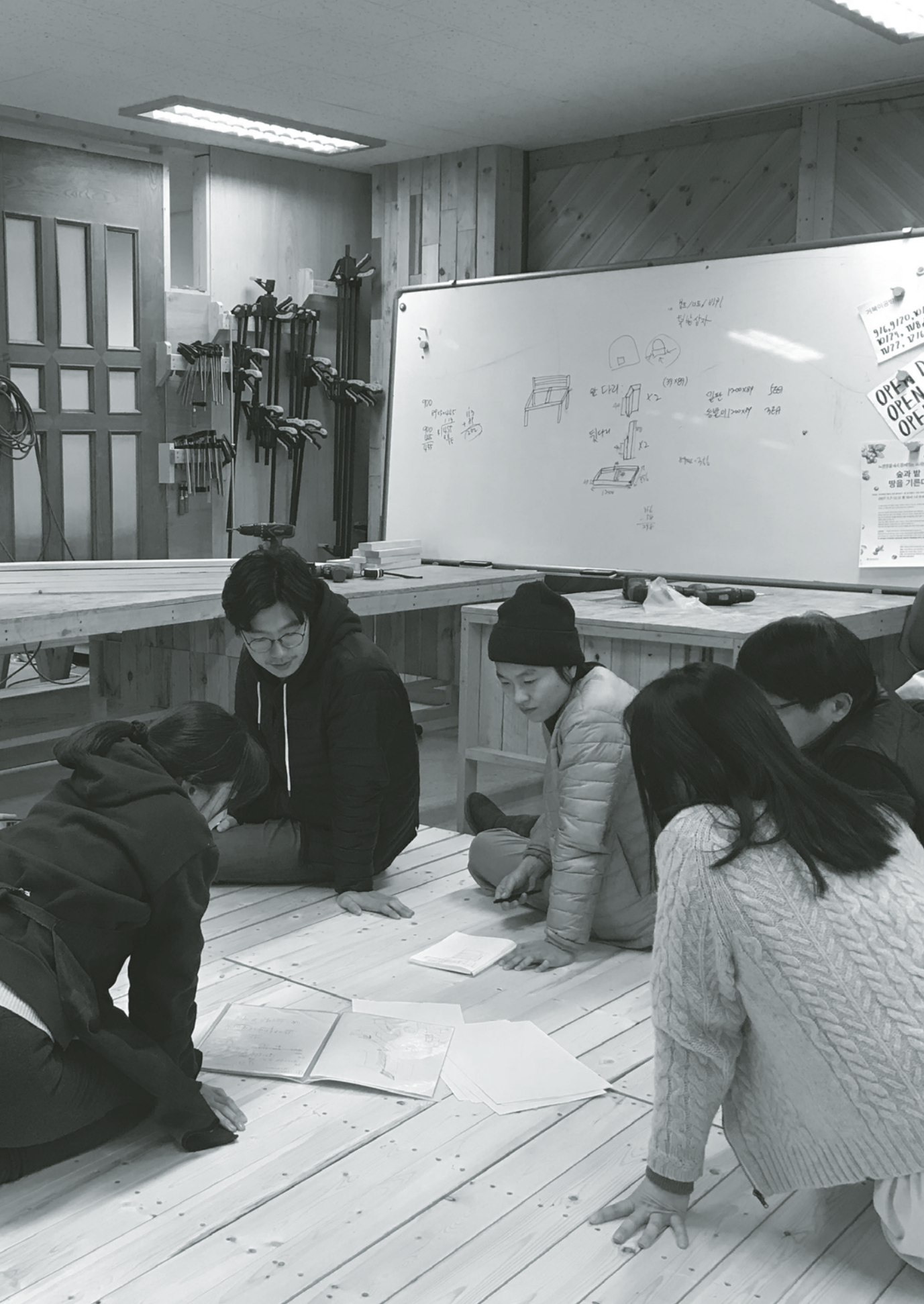
마종기, <우화의 강> 중에서

	1 강좌	2 프로젝트	3 활동모임	4 축제&오픈데이	5 자체워크숍
참여방식	기초기술습득	스스로 작업하는 연습	친구들과 실험해보기 작업을 일상화하기	다른 친구들을 만나기 이웃을 만나기	초보작업자들에게 재미와 기술을 알려주기
같이하는 사람들	학습자 강사 담당자	참가자(학습자) 가이드(강사) 매개자(담당자)	활동모임원(학습자)	활동모임원 담당자	활동모임원 시민
학습자의 진화	학습자	→ 학습자에서 주도적 학습자로	→ 학습자에서 작업자로	→ 작업자에서 선배작업자로	→ 작업자에서 가이드로
활동 별 연계		수시로 병행해서 진행		축제, 오픈데이를 통해 자체워크숍을 주도 일상모임에서도 워크숍 상시진행	
기획자의 의도	입문	★자극	느슨하게 기다리기	★자극	여유롭게 유지
	#이후의 비전: 활동모임들이 자신들의 동네에 공동작업장을 만드는 것				

학습관의 거북이공방은 공공공방이고, 시민작업장이며, 연대와 공동의 가치 같은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이곳을 찾는 시민들은 강좌가 되었든 활동모임이 되었든 여기서부터 시작하지 않는다. 우리 집에 뭐가 필요하다거나, 새로운 취미를 갖거나 뭘 만들어보겠다는 소소한 기대로 찾아온다. 그렇게 찾아와서 뭔가를 즐겁게 만들고 나면 그것을 공유하고 싶다는 소박한 욕망이 찾아든다. “이거 어때, 좋지 않아?” 자랑하고 싶고, 알려주고 싶은 마음,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토대가 되어 사람들이 서로 만나고 모임을 구성하게 되고, 또 모임을 확장하게 된다.

현재 거북이공방의 활동모임은 7개. 강좌를 통해 배운 것을 학습자들끼리 이어나간다. 하지만 갈고 닦는 것은 목공기술뿐이 아니다. 직접 만들어보는 행위를 통해, 그리고 강사의 삶과 인품을 통해, 이곳에서 만난 다른 수강생을 통해, 이제까지 생각해보지 못한 전혀 다른 삶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잦은 만남과 함께 만들기를 통해 나눈 우정을 지속하고 서로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 친구가 되어 가는 것. 이것이 활동모임의 실체에 가깝다.

글 백현주(수원시평생학습관 기획실장)



부록

거북이공방 연대기

	2014	2015	2016	2017	2018
강좌운영	<p>핸드메이드-오래된 미래 이야기 with 임정희 제작-놀이의 빛을 밝히다 with 이웃문화협동조합 노머니라이프와 작업장 with 박활민 등사인쇄 with 청개구리제작소 더치커피 도구만들기 with 송주희</p> <p>ISSU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간구성 및 프로그램 준비를 위해 학습관 직원, 지역활동가, 시민참여자가 함께 매 주 금요일 책임기 모임 진행 손작업을 주제로 하는 다양한 특강, 워크숍 진행 학습관의 강좌를 진행하는 장소로서의 활용 	<p>재활용 목공 with 박활민 양순네 재봉워크숍 with 양순네 적정기술워크숍 with 마을기술센터 핸드 나무깎는생활 with 길공방</p> <p>ISSU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박활민 작업자의 재활용목공을 중심으로 단기 프로그램 진행 기존 공방 자리에서 진행되던 드로잉 등 문화예술프로그램 참여자들이 접속할 수 있도록 공간배치 했으나 먼지/도구관리등의 문제로 드로잉, 캘리등의 프로그램은 장소 이동 활동모임 기계안전 사고발생 	<p>목공구배우기 with 장영환 나무깎는생활 with 길공방 직조워크숍 with 직조생활 공방을위한기술 with 나무와늘보 텃밭을위한기술 with 최용범</p> <p>ISSU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계안전사고 이후 목공기술 습득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종류의 기초강좌(정규) 개설 및 공간/도구 재구성 다양한 아이템과 시간대의 강좌 배치로 공동작업장(목공방)으로의 운영을 위한 수요조사. 공방 인적네트워크 확장을 위한 '공방특강' 개설 기초목공강좌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활동모임 시범 운영 거북이공방 강사 간담회 시작 	<p>목공구배우기 나무깎는생활 공방을위한기술 나무와칼도끼 with 용형준 대나무배우기 with 한창균</p> <p>ISSU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6년 데이터를 기반으로 연 단위 연계강좌 운영 거북이공방 안전운영매뉴얼 구축 및 안전교육 실시 손작업의 다양화를 위한 신규강좌 개설 활동모임 정규모집 및 운영 	<p>목공구배우기, 나무깎는생활, 나무와칼도끼, 날물연마워크숍, 대나무배우기, 톱딱딱작은목수 오픈워크숍</p> <p>ISSU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강생들의 지속적 작업 활동의 기반을 위해 단계별 심화프로그램을 연단위로 진행 초등생대상 목공프로그램 진행, 다양한 연령층으로 목공강좌 확대운영 열린작업장, 공동작업장으로의 운영을 위한 오픈데이 증설과 활동모임의 자체활동 및 프로젝트 활성화
공방특강			<p>3/16 김진송 3/23 안연정 6/8 바스쿨럼 11/4 소목장세미 9/30 후가</p>	<p>4/12 완주속녀회 3/22 릴리쿰 11/15 이세일 9/27 이중희</p>	<p>3/14 저스트프로젝트 4/18 메리우드협동조합 5/16 미크그린 6/27 김대호</p>
오픈데이			<p>7/6 오픈데이 첫 시도</p>	<p>오픈데이 정규화</p>	<p>오픈나잇 오픈워커펀드 오픈워크숍 (토크클럽프/전동드릴)추가진행</p>
프로젝트	<p>프로젝트 형식 도입 11/10-12/15 움직이는부엌프로젝트</p>	<p>4/19-6/7 거북이공방매뉴얼북 만들기 5/17-5/31 지렁이상자 만들기 8/23-9/6 함께를위한테이블 만들기 11/24-12/29 공방 트롤리 만들기</p>	<p>2/2-4/7 도시양봉 벌통 만들기 4/11-6/11 느린텃밭 텃밭상자 만들기 6/17 깎기 작업대 만들기 11/23-12/28 공방의자+테이블 만들기 11/25-12/23 거북이공방 작업달력 '수력' 만들기</p>	<p>17/11/14-18/1/2 텃밭상자&평상 만들기 4/23-6/21 모두의숲 놀이터 만들기 9/2-10/2 모두의숲 평상 만들기 5/19, 12/8 대나무캠프 11/30 크리스마스 옷걸이 만들기 12/15 거북이공방 Pick&picture 사진촬영회 12/15 호루라기 만들기</p>	
활동모임	<p>3월 작업장 준비모임</p>	<p>작업장 준비모임 해체 7월 박활민을 주축으로 한 몸솔공작단 신설</p>	<p>4월 나무향기 7월 화요거북이 12월 언플러그드우드카빙</p>	<p>8월 두드림 7월 그린우드카빙 12월 자라 나무향기 해체</p>	<p>7월 죽사발 8월 밤깎기 12월 희죽희죽 12월 곰세마리</p>
활동모임 주요활동	<p>거북이공방 공간구성 워크숍 '도시락목공'</p>			<p>5/23 지역민대상 가구수리 워크숍 '수리수리마수리' 진행 with 화요거북이 5/27 우مان사회복지관 마을축제 거북이공방 부스 나무깎기체험 진행 with언플러그드우드카빙 10/24 세계평생학습대회 유네스코 지정 '책갈피깎기 키트'기념품 제작 및 전달 with언플러그드우드카빙</p>	<p>9/7-8 2018지역도서전 '북아트마켓' 책갈피 판매부스 참가 with 언플러그드우드카빙 10/13 2018 하반기 모두의놀이터축제 '작업자들의 놀이' 부스참여 with활동모임전체</p>

거북이공방 도구와 기계

종류	이름	모델명	수량	보관장소
수공구	샌더기	Makita [마끼다]	10	기계실
	핸드드릴	Makita [마끼다]	24	조립실
		보쉬 10.8v		
		Aimsak [아임삭]		
	미니손대패	CP-188 (미니핑대패)	25	
	일본 평대패	호라이 썬데이맨	2	
	남경대패	철마	2	
	배대패	철마	2	
	톱	TaJma [타지마]	20	
	중간 톱	백마 T-250	10	
	등대기톱	옥조 372, 370	10	
	대나무톱	백마 P-240	5	
	실톱/만능톱	피코스	3	
	끌	백마	21	
	줄자	코멜론 셀프락 줄자 MC-8C-86	11	
		타지마top35	20	
	버니어캘리퍼스	HCC	3	
	케가끼	[MATSUI/PICO] 케가끼 게이지 PICO	5	
	연귀자	일본 신와 연귀자 지형스퀘어	9	
	플러그톱	우진 / 탐맨	10	
	나무망치	엘리펀트 나무망치	12	
	나무망치(쫓개기용)	후가(제작)	10	
	우레탄망치	[HALDER]독일 하덜 EH 3013/3018	5	
	쇠망치	HWA RANG	8	
	F클램프	Bessey [베세이]	24	
	퀵클램프	Smato [스마토]	36	
		어윈클램프 xp (강력형) 512/518/524		
	대나무 칼	변사또 대장간	10	모두의연구소
	조름칼	일제	5	

종류	이름	모델명	수량	보관장소
기계	플런지쏘	DeWALT [디월트]	1	기계실
	각도절단기	Makita [마끼다]	1	
	테이블쏘	DeWALT [디월트]	1	
	스크롤쏘	ALLWIN [올윈] ASS-16	2	
	직쏘	Makita [마끼다]	3	
	원형샌더	Makita [마끼다]	13	
	트리머	Makita [마끼다]	2	
	드릴프레스	용수YSDM-100	1	
	그라인더	BOSCH [보쉬]	1	
	집진기	Makita [마끼다]	4	
	에어타카	(630/1850/1022/422/CT64)	5	
	탁상그라인더	삼지	1	
	연마	습식연삭기	Tormek[토맥] T-8	
다이아몬드숫돌		MORAKNIV	9	모임실
깎기 공구	접목도	일제접목도	12	모임실
	환도	금화	15	
	곡환도	금화	10	
	도끼	스웨덴 그랑스포스 와일드라이프헛헛	12	
	칩카빙나이프	MORAKNIV	10	
	모라나이프	MORAKNIV 120	10	
	모라스폰나이프	MORAKNIV 164	10	

거북이공방 활동모임 현황

월

밤깎기

밤에 공방에 모여 앉아 나무를 깎는 모임입니다. 숟가락, 그릇 등 일상에서 쓸 작은 물건을 만듭니다. *아이들도 참관 가능 합니다.

화

화요거북이

기계를 다루는 목공모임입니다. 목공구배우기 강좌를 통해 습득한 기술을 연습하며 일상의 소품과 거북이공방에서 함께 쓸 물건을 제작합니다.

희죽희죽

즐겁게 대나무로 손작업을 하는 모임입니다. 토요일의 '죽사발'과 함께 활동합니다.

목

투드림

공방의 다양한 도구를 사용하며 목공작업을 합니다. 작은 목각인형부터 조명, 테이블, 벤치까지 삶기술을 활용해 일상이 풍성해지는 소품을 제작합니다.

곰세마리

일상의 손을 살리고, 마음을 살리고, 몸을 살리는 모든 작업을 합니다. 숲과 공방을 관통하는, 나무와 흙을 만지며 손기술을 통해 관계를 맺는 모임입니다.

금

그린우드카빙&자라

나무와 칼, 도끼를 활용하여 일상의 소품을 만듭니다. 나무의 본래 모습에서 부터 쓰임이 좋은 물건의 모습까지로 다듬어 가는 과정을 함께 고민합니다.

토

언플러그드우드카빙

조금은 느리더라도, 오롯이 손으로 만드는 작업을 지향합니다. 나무를 깎아 책갈피와 호루라기를 만드는 워크숍을 열기도 합니다.

죽사발

대나무를 엮어 찻잔받침, 바구니 등의 생활소품을 만듭니다. '대나무배우기'강좌를 들었던 수강생은 누구나 참여 할 수 있습니다.



거북이공방 친구들

펴낸곳

수원시평생학습관

펴낸날

2018년 12월

펴낸이

정성원

엮은이

정다현, 현민주, 이완솔 교육팀 연구원

디자인

강경탁, 장윤정(a-g-k.kr)



수원시 평생학습관
Suwon Lifelong Learning Center

주소

16232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월드컵로 381번길 2

전화

031-248-9700

팩스

031-248-9902

홈페이지

learning.suwon.go.kr

블로그

suwonedu2011.blog.me

인스타그램

[slowmakespace_suwon](https://www.instagram.com/slowmakespace_suwon)